



라이트급 조향미(왼쪽)가 준결에서 강적 호주의 리사오케트를 맞아 6-4로 제압했다.

남자 스페인 미국말고도 터키와 덴마크 등의 신예두각 여자 지난대회 7체급 제패에서 3체급으로 줄어

여자 라이트급 조향미 사상 두번째의 3연패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애드먼튼에서 치러졌다.

<월간 태권도>는 이 대회를 취재한 서완석 차장으

로부터 대회 총평 및 남녀 경기분석, WTF 총회소식, 대회 이모저모를 넘겨받아 이번호에 특집으로 실는다.

캐나다 애드먼튼=서완석 차장(국민일보)

총 평



▲서완석 기자

한국이 '99 애드먼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서 남자 14연패, 여자 7연패를 차지한 가운데 6월 6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내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유망주들을 대거 내보내

한국을 크게 위협했다.

남자부에서는 터키(은 3), 덴마크(은 2) 등에서 뜻밖의 강자들이 나와 선전을 거듭했고 대만, 스페인, 미국 등 전통의 강국은 88년 서울 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컴백,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한 중국은 여자 밴텀급에서 슈왕이 금메달을 따내는 등 여자부서만 금 1, 은 1, 동 2개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한국은 남자부서 전체 8체급 중 금 6, 은 1개를 획

득, 평년작을 거뒀지만 매경기 접전을 펼칠 만큼 중추국다운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지 못했다.

심각한 쪽은 여자부. 금 3, 은 3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지만 스페인(금 2, 은 1, 동 2)과 대만(금 2, 동 2)의 추격에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지난 대회에 7개나 금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이 절반도 못되는 금 3개에 그친 것은 91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금 3, 동 2)에 이어 8년만이다.

물론 편급의 윤송희와 밴텀급의 정재은(이상 한체대)이 결승전서 승부에는 이기고도 판정에는 저 아

쉬움을 남겼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량이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

더욱이 내달 올림픽예선전(크로아티아)에 출전키로 된 이정민(송곡여고·웰터급)은 1회전에서 창완첸(대만)에 저 한국팀에 충격을 던졌다.

이번 대회서 대회 3연패 달성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조항미(인천시청·라이트급)는 역대 여자선수로 두 번째로 목표를 달성했고 이동완(춘천시청·미들급)은 초반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분석

1. 남자 부

시드니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했다.

한국이 비록 6체급을 석권했지만 매경기 고전을 거듭해야 했다.

남자부서는 특히 터키와 이란 등 아랍세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수들이 우수한 체력을 앞세워 중량급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한 것이 특징.

특히 이란은 남자 라이트급의 사에이보네코할과 미들급의 아폴라키삼세가 1위에 올라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렸다.

게다가 이란은 58kg의 세계최강인 메이디 아슬을 7월 크로아티아 올림픽예선전을 앞두고 전력 노출을 피해 이번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는 집요함을 보였다.

터키의 약진도 이번 대회의 주목거리. 터키는 89년 서울세계선수권에서 은 2, 동 1개로 종합 2위를 올렸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 다시 정상권 진입에



▲플라이급 윤종일(오른쪽)이 결승에서 덴마크의 하이데르 아브로르에게 원발 옆차기공격을 하고 있다. 윤종일이 3-2로 승리.

지만 1년뒤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다.

지난 91년 아테네대회서 금 2, 은 1개로 종합 2위

각국 선수들 기량 급성장, 한국 매경기 고전 거듭 별도 대비책 없이는 시드니 올림픽 전망 불투명

성공했다.

터키는 남자 웰터급의 탄리롤루가 비록 결승에서 한국의 장종오에게 졌지만 나래차기는 일품이었다.

남자 밴텀급의 에브시멘은 결승서 한국의 고대휴에게 졌지만 특기인 오른발 받아차기가 단연 돋보였다.

중량급에서는 북유럽국가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아직 상위권에는 대거 진출하지는 못했

을 차지했던 덴마크는 이번 대회서도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플라이급의 하이데르 아브로르, 페더급의 로예젠 에스퍼는 결승에서 각각 한국의 윤종일과 노현구에 저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다양한 발기술은 세계정상급이었다.

남자 헤비급에 출전한 노르웨이의 홀터는 225cm로 역대 태권도선수 중 최장신 선수로 주목받았다.

아직 경기운영의 노련미는 부족했지만 기본기가

잘 갖추어졌고 못하는 발기술이 없을 정도였다.

스페인과 대만은 전선수들의 기량이 한국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어보였다. 4개의 동메달을 따낸 스페인은 남자 라이트급의 알론조 로덴도가 돋보였다.

원발 앞돌려차기에 이은 뒷차기가 일품이었고 밴텀급의 이반 론은 경쾌한 스텝에 이은 연속공격이 돋보였다.

대만은 경고누적으로 인한 반칙패로 동메달 2개에 그쳤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었다.

스페인 고속성장, 대만 체계적인 강훈과 집중투자

이밖에 멕시코는 남자 웰터급에서 동메달 1개에 그쳤지만 80킬로그램의 강자 에스파라다 비토르를 크로아티아 예선전에 대비해 출전시키지 않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상대였다.

김세혁 에스원 감독은 "올림픽예선전을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1, 2명 정도의 강호를 이번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한 내년 올림픽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2 여자부

여자부는 스페인이 전체급에 걸쳐 한국을 위협했다. 또 대만은 경량급에서 오히려 한국을 능가할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키 큰 선수들을 앞세워 성장속도가 매우 빨랐다.

스페인은 금 2 은 1 동 2개로 역대대회 중 최고의 성적을 보였다. 웰터급의 엘레나 베니테스는 34세의 노장이지만 체력의 열세를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만회, 금메달을 따냈다.

핀급의 아센지오 벨렌은 앞돌려차기와 나래차기가 특기로 한국의 윤송화를 누르고 우승했다.

미들급의 이본도 결승에서 한국의 김윤경에 졌지만 체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발기술이 돋보였다.

전통적으로 경량급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대만은 금 2 동 2개로 여전히 강구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서는 헤비급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경사가 났다. 헤비급 결승서 대만의 카오는 한국의 신경현을 꺾고 올라온 홈코트의 보스하트(캐나다)와 난타전 끝에 14-1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대만이 헤비급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

대만은 플라이급의 치슈주가 결승에서 한국의 심혜영을 실력으로 물리칠 만큼 경량급에서 우위를 보였다.

여자 밴텀급서 동메달을 따낸 멩에이춘도 다양한 발기술과 경기운영 능력이 돋보이는 북병으로 떠올랐다.

세계대회에 첫선을 보이는 중국은 장신선수들을 집중 육성, 앞으로 돌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 1, 은 1, 동 2개를 따낸 중국은 장신선수들의 체격 조건을 십분활용,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 없이는 정상 고수 힘들어

밴텀급의 슈양은 결승에 오르기까지 큰 점수차로 상대를 압도했고 뒷차기가 일품이었다.

라이트급서 2위에 오른 장후이징은 빠른 발과 함께 좌우 돌려차기는 세계적인 기량이었다.

국내의 한 대학감독은 중국선수들을 맡아 기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라면서 중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대회를 지켜본 인천시청 임신자 감독은 "단일 득점제로 치러지는 현행 경기태권도는 기술 발전이 이미 한계에 왔고 따라서 한국의 우위도 더 이상 지켜지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임감독은 "올림픽서 한국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강훈과 집중투자만이 그나마 중국 국의 자존심을 지켜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3. 대회특징 - 경고률의 엄격한 적용

이번 대회는 경고률을 엄격하게 적용, 경기를 박진감 넘치도록 이끈 점이 특징. 종전에는 2, 3점 앞서있으면 소극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굳힐려고 해 경기내용이 재미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서는 비록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꿈무늬를 빼거나 공격을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경고를 줬다. 그리고 경고 2차때당 1점 감점, 모두 6개의 경고를 받으면 즉시 반칙패를 선언, 승부의 주요 변수가 됐다.

이 때문에 한국 남자 페더급의 노현구는 대회 첫날 준결승에서 대만의 슈에 1-5로 뒤지다 상대선수의 경고 누적으로 행운의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결국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필리핀의 홍성천 사범은 "이번 대회서 가장 특징

적인 것을 꼽으라면 이처럼 경고률을 엄격하게 적용, 경기를 끝까지 박진감 넘치게 만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선수들도 계속 밀리던 반칙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공격일변도의 재미 있는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이 룰 적용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범들로부터 불신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모든 심판들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계연맹 지휘부가 강력하게 경고률을 적용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숙지하지 못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심판들은 기존처럼 경고판정에 미온적이었나 하면 또 다른 심판들은 지나치게 경고률을 적용해 경기를 뒤집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번 대회서는 이처럼 경고 6회를 인한 판정이 3차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대만선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대만은 3차례중 2차례는 손해보고 1차례는 경고 덕분에 승리, 희비가 엇갈렸다.

4. 노장 선수의 컴백

이번 대회서는 80년대 한창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노장 선수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들은 88년 서울 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로 내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겨냥해 다시 선수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첫날 패더급에 출전한 강해은(오른쪽)은 결승에서 멕시코의 블랑코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중 한국에게 낯익은 선수로는 대만의 첸이엔과 스페인의 엘레나 베니테스, 멕시코의 세이드 미국의 모레노 등. 이중 첸이엔은 서울 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석권한 대만 최고의 여성 스포츠스타로 4년전 은퇴했다 지난해 컴백, 방콕 아시아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1회전에서 한국의 강해은(패더급)에 저 초반 탈락했다. 스페인의 엘레나는 34세의 할머니(?) 선수. 90년대 초반까지 국제무대에서 한국 선수의 무서운 호적수로 이름을 날린 뒤 은퇴했다 다시 세계대회에 출전했다. 웰터급의 엘레나는 체력과 파워는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결국 우승을 차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체급은 한국이 7월 크로아티아 올림픽예선전에 출전신청을 한 체급. 한국은 이정민이 1회전서 대만 선수에게 저 탈락했다.

❖ WTF총회 소식❖

시드니 올림픽 결승전 「서든데스제」 도입

● 6월 1일 코스트 애드먼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연맹 총회서는 시드니 올림픽 결승전에 한해 서든데스(Sudden Death)제를 도입하는 안을 채택. 서든데스란 연장전에서 선취득점을 하는 즉시 경기를 끝내는 방식. 비록 한시적이지만 태권도에서 연장전을 도입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방식은 올림픽 결승전에서 3회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회전의 연장전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는데 끝내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전의 성적만으로 우세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올림픽 결승전에서만큼은 심판의 자의적인 판정을 조금이라도 줄여 공정한 판정을 내리겠다는 교육지책에서 나왔다.

세계연맹 이금홍 사무총장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효과를 봐 앞으로 모든 국제대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운용 총재 인터뷰

2004년 올림픽에서도 태권도 채택 될 것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는 태권도가 더 이상 정체되서는 안된다며 시대흐름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총재는 6월 3일 애드먼튼의 쇼군레스토랑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규칙개선을 비롯한 각종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총재는 시드니 올림픽에는 현재의 단일득점제로 치르기로 조직위원회와 세계연맹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시드니 이후 국제대회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번 캐나다 애드먼튼대회에 최근 자신을 괴롭혀온 딕 파운드 IOC위원(캐나다)을 초대했었다면서 파운드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태권도성전건립과 관련 김총재는, 정부는 1조 9천억원을 들여 월드컵축구장을 짓고 있으면서 200억원만 투입하면 건립할 수 있는 전당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2004년 올림픽에서 다시 태권도가 정식종목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총재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절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김운용 세계연맹 총재.

적인 도움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될 수 있었다며 자신과 사마란치 위원장이 힘이 있으면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차기 대회 유치

● 차기 세계대회 개최국들이 확정됐다.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는 우근민 지사 등 13명의 유치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제주도가 개최권을 따냈다. 한국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89년 이후 12년 만이다.

제주도는 2001년 9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도에 맞서 그리스 아테네가 유치를사를 표명했지만 총회는 아테네가 2004년 올림픽 개최지임을 감안, 2003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

또 2000년 월드컵은 프랑스 리옹(6월)으로 낙착됐고 2001년 월드컵은 베트남의 호치민(5월)이 개최권을 따냈다.

빠른 행정처리 위해 규약개정

● 총회서는 또 일부 규약개정이 있었다. 특히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는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집행위원수를 15명에서 18명으로 늘였고 부총계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또 심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신설했다.

차등점수제를 연구 과제로

● 5월 31일 코스트 애드먼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합동기술회의에서는 차기대회부터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태권도가 영구 올림픽종목이 되기 위해서

인터뷰

정종택 단장 인터뷰

승패도 중요하지만 매너가 더욱 중요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내세울 것은 두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이고 둘째는 태권도입니다."

정종택 한국선수단 단장(충청대학장)은 태권도가 현존하는 한국최고의 문화유산이라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는다.

정단장은 농수산부장관, 정무장관, 환경부장관과 11~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역대 한국선수단장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이력을 지닌 단장. 그만큼 한국선수단에 자긍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대회가간동안 한국선수들 옆에서 묵묵히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며 국제신사로서의 이미지를 각국 선수단에 심었다.

"저도 좋고 이기면 더욱 좋다. 그러나 중추국 선수로서의 매너는 각국이 지켜라" 정단장은 선수들에게 승부를 떠나 항상 예절 바른 행동으로 다른나라 선수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다. 경기에서 이기는 지든 항상 각국이 절하고 예절로서 상대를 대할 때 비로소 외국인들이 태권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지난해 불적하고 있는 충청대에서 국제태권도대회를 창설, 처음으로 태권도와 인연을 맺었다.

"태권도가 국기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귀국한 한국선수단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정종택 단장.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 정단장은 국회에서 태권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충북지사 시절 소년체전 분산개최와 선수단의 민박을 처음 제안해 실천했다고 솔직한 정단장은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지혜를 짜내면 현재보다 더욱 짜임새 있는 태권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태권도인들의 분발을 기대했다.

는 좀더 재미있는 경기방식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등점수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시드니 올림픽까지는 단일점수제인 현행 경기규칙의 개정이 불가능하므로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에스토니아 등 4개국 가입 승인

● 5월 31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에스토니아, 솔로몬 군도, 방글라데시, 니제르 등 4개국의 가입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WTF 가맹 회원국수는 총 156개국으로 늘어났다.

❖ 대회 이모저모 ❖

숙적 만나 멋진 설욕



문 대 성

강 해 은

● 남자 헤비급의 문대성과 여자 페더급의 강해은은 이번 대회서 오랜 숙적을 만나 멋지게 설욕. 문대성은 준결에서 96년 호주 아시아선수권대회서 자신에게 치욕스런 패배를 안긴 호주의 트랜틴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차지했다.

강해은도 여고시절인 94년 필리핀 아시아선수권대회서 자신에 패배를 안긴 대만의 첸이연을 만나 5년만에 설욕했다.

돌보인 갤러리 남매 시범

● 대회기간 중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자넷 갤러리(14)와 브라이언 갤러리(12) 남매의 시범.

미국에서 원정시범에 나선 이들은 태권도동작에다 일부 쿵후동작을 섞어 경쾌한 음악에 맞춰 멋진 공연을 보였다.

복장도 태권도복 형태의 디자인에 반짝이는 무대 의상을 입고 나와 환한 조명과 함께 관중들의 넋을 빼놓았다.

이들은 당초 개막식 행사만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매일 결승전을 앞두고 시범공연을 펼

쳤다.

정종택 한국단장은 “이번 대회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공연”이라며 “한국의 태권도 시범도 격파나 품새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훨씬 관심을 끌 것.”이라며 찬평.

이색적인 만남의 장소

● 캐나다 선수단의 총감독인 장용석 사범은 버스를 개조한 자신의 이동주택(모빌하우스)을 대회장인 버터듬경기장 옆에 주차시켜 놓고 만남의 장소로 제공.

2000k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차를 물고온 장사범은 경기장에서 서성이는 한국사범들을 자신의 이동주택으로 초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한국사범들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진한 애국심

● 경기장에는 한국유학생 20여명이 연일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

에드먼튼에 이민온 학생이거나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인 이들은 복을 치면서 한국선수들이 선전할 때마다 “코리아 파이팅”을 외쳐 선수들의 사기를 올렸다.

강습회에 역대 최대인원 몰려

● 제 38회 국제심판강습회가 경기장 인근 알버타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강습회는 당분간 국제심판 교육이 없을 것이라는 세계연맹의 방침 때문에 역대 강습회 중 가장 많은 326명이 참석했다.

이중 한국 교육생은 54%인 178명에 달해 중구국다운 높은 수강율을 보였다.

세계연맹은 이미 많은 국제심판이 배출됐고 심판

인터뷰

고우방 제주태권도협회장

2001년 제주대회 역대최고대회로

"2001년 제주대회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기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제주도의 고우방 태권도협회장은 제주도의 역할을 총집결, 세계태권도인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01년 대회는 제주도에서는 모든 운동종목을 통틀어 처음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적인 관광명소답게 교통 및 숙박시설이 완비돼 있고 무엇보다 89년 서울대회 후 12년만에 종주국에서 대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 13명의 민·관 유치단과 함께 애드먼트대회를 직접 참관한 고 회장은 "제주대회는 경기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이 합쳐진 종합이벤트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유치가 확정된 뒤에도 일부 관계자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대회장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벌써부터 대회 준비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소년체전을 무난히 치러낸 제주도의 역량으로 박 단일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는 오히려 쉽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애드먼트대회에서 불편했던 점으로 지적된 선수단 수송문제와 관련, 제주에 있는 70개 태권도장의 미니버스를 각국 선수단에 배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귀띔했다. 이미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이런 방식으로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태권도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이중효과를 봤다고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제주도협회 고우방 회장이 대회기를 건네 받았다.

털어놓았다.

제주도가 차기 대회에서 노리는 주안점은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성가를 드높이는 것. 이를 위해 가급적 많은 참가자들에게 제주도의 관광명소를 보여주고 부차적으로 관광수입도 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벌써부터 대회기간 동안 2만명의 내외국인이 대회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찾을 것이란 분석까지 끝냈다.

외국참가자들을 위해 김포공항과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적극활용해 의사소통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 회장은 강조했다.

"제주도의 또다른 강점은 관광명소라는 점 외에도 태권도인들의 단합된 힘입니다."

이번 대회 유치를 앞두고 제주태권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대적인 힘이 됐다는 고회장은 남은 2년간 최선의 준비를 해 가장 모범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보다 심판의 자질 향상이 급선무라며 심판 제고
육에 더욱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춤 솜씨도 종합우승

● 한국선수단은 남녀 종합우승을 확정지은 뒤 대
회 조직위가 마련한 고별파티에서도 단연 인기.
애드먼턴 시내 물리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서 한국선수들은 최고의 춤솜씨를 뽐내며 타국가
선수들을 압도. 한국선수들이 앓다뒹 플로어를 휩
쓸자 타국선수들은 한국선수 주위를 에워싸 흥겨
운 환관 춤솜씨를 벌였다.

이 때문에 당초 밤 12시까지로 예정된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기도 했다.

김윤경, 부상 딛고 금메달

● 여자 미들급의 김윤경은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

상을 입고도
금메달을 따
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김윤경은 8
강전서 핀랜
드의 리우코
넌과 부딪쳐
오른쪽 정강
이가 5센티미
터 가량 찢어
졌다.

그러나 경기
장에서 8바늘
을 꿰매고 4
강전에서 중국선수를 2-0으로 이긴데 이어 결승전
에서도 멕시코 선수를 우세승으로 누르는 투혼을
발휘했다.



김 윤 경

종합우승의 숨은 일꾼들

팀닥터 박동식 교수, 최익환 물리치료사

"선수들에게 진통제 주사를 맞히고 코트로 내보
낼 때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이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는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한 팀닥터 박동식 교수(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와 최익환 선생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의 활약이
 컸다.

이들은 대회기간 동안 각종 부상으로 힘들어 하
는 한국선수들을 돌보는 한편 외국선수들의 부상
을 돌봐 "역시 중구국 팀닥터"라는 찬사를 들었다.
선수들이 과거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적
인 부상이 대부분이라는 박교수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량이 엇비슷해진 만큼 의료
진의 역할이 더욱 컸겠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특히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선수생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선수들
도 최소한의 의료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생도 "선수들의 테이핑 지식이 너무나 주먹
구구식인데 놀랐다"면서 "평소 운동할 때부터 과
하적인 테이핑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
다"고 말했다.

이들이 살려낸 태권도선수들의 상해는 너나 할

것 없이 발, 무릎, 허리 부위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이 근육통 환자였다는 것. 이 때문에 많은 선수들
이 새벽까지 이들의 방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여자 미들급의 김윤경(춘천시청)은 경기중 오른다
리 정강이가 찢어져 8바늘이나 꿰매 뒤 경기에 임
하기도 했다.

치료를 받고 나간 선수가 경기에 이기고 올 때 가
장 기뻐하는 최선생은 다음에는 태권도선수들에게
지루 일어나는 상해에 대한 치료법을 좀더 체계적
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교수는 부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
지만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심리요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
음을 알았다"는 박교수는 "이들의 긴장을 해소해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트레이닝 못지 않게 승부에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태권도협회 의무분
과위원으로 태권도와 인연을 맺었고 최선생은 7년
전 상무에 근무하면서 운동선수들의 상해에 관심
을 가져왔다.

태권도 국제대회 잇따를 전망

종주국에 걸맞게 활발한 움직임

그동안 종주국이면서 이렇다할 연례 국제대회조차 없었던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잇따라 개최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춘천시가 내년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태권도대회 개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태권도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지는 데 있다.

제주도는 '99 애드먼튼 세계선수권대회에 우군인 지사를 비롯한 대규모 유치단을 파견해 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대회 유치 및 준비에 1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한 제주도는 2002년부터는 별도의 국제태권도대회를 창설, 매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춘천시도 제주도처럼 관광수입증대를 목표로 대회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 협회에 의사를 타진한 춘천시는 애드먼튼에까지 관

제자들을 파견해 대회 참가팀에 대한 섭외 및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제대회를 창설한 충청대는 오는 8월 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대는 애드먼튼 세계선수권대회 버터돔 경기장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대대적인 대회 홍보에 들어갔다.

충청대는 세계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 단장인 정종택 학장과 오경호 이사장이 대회 팸플릿을 돌리는 등 대회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다.

충청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태권도를 통해 대학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높이고 태권도문화를 수출하는 첨병역할을 하자는 데 있다.

충청대는 태권도를 특성화한 대학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또 마산 문화방송도 별도의 국제대회 창설을 위해 경남태권도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별 메달 집계

◀ 남자부 ▶

◀ 여자부 ▶

순 위	국 가	금	은	동	국 가	금	은	동
1	한국	6	1		한국	3	3	
2	이란	2			스페인	2	1	2
3	터키		3		대만	2		2
4	덴마크		2		중국	1	1	2
5	스페인			4	캐나다		1	2
6	필리핀		1		멕시코		1	
	프랑스		1		네덜란드		1	
8	대만			2	터키			2
	미국			2	러시아			2
10	칠레			1	프랑스			1
	도미니카			1	호주			1
	호주			1	스위스			1
	멕시코			1	벨기에			1
	모로코			1				
	베트남			1				
	독일			1				
	카자흐스탄			1				

* 남자부 경기전적 *

■핀급

- ① 민병석(한국)
- ② Roberto Cruz(필리핀)
- ③ July Mercedes(도미니카)
- ④ Wei Chun Chen(대만)

❖ 결승

민병석(한국) 3-1 Roberto Cruz(필리핀)

❖ 준결승

Roberto Cruz(필리핀) 7-4 July Mercedes(도미니카)

민병석(한국) 4-3 Wei Chun Chen(대만)

■플라이급

- ① 윤종일(한국)
- ② Abror Haider(덴마크)
- ③ Younes Sekkat(모로코)
- ④ Nhat Thong Ho(베트남)

❖ 결승

윤종일(한국) 2-0 Abror Haider(덴마크)

❖ 준결승

윤종일(한국) 5-(-1) Younes Sekkat(모로코)

Abror Haider(덴마크) 우세승 1-1 Nhat Thong Ho(베트남)

■밴텀급

- ① 고대휴(한국)
- ② Ahmet Evcimen(터키)
- ③ Mark Lopez(미국)
- ④ Ron Ivan(스페인)

❖ 결승

고대휴(한국) 9-4 Ahmet Evcimen(터키)

❖ 준결승

고대휴(한국) 3-(-1) Mark Lopez(미국)

Ahmet Evcimen(터키) 6-1 Ron Ivan(스페인)

■페더급

- ① 노현구(한국)
- ② Jesper Roesen(덴마크)
- ③ Franciso Zas(스페인)
- ④ Chi Hung Hsu(대만)

❖ 결승

노현구(한국) 4-2 Jesper Roesen(덴마크)

❖ 준결승

Jesper Roesen(덴마크) 4-2 Franciso Zas(스페인)

노현구(한국) 반칙승 Chi Hung Hsu(대만)

■라이트급

- ① H. Saeibonehkohal(이란)
- ② 김병욱(한국)
- ③ Sergio Cardenas(칠레)
- ④ Rosendo Alonso(스페인)

❖ 결승

H. Saeibonehkohal(이란) 4-1 김병욱(한국)

❖ 준결승

H. Saeibonehkohal(이란) 2-1 Rosendo Alonso(스페인)

김병욱(한국) 5-1 Sergio Cardenas(칠레)

■웰터급

- ① 장종오(한국)
- ② Bahri Tanrikulu(터키)
- ③ Rodrigo Martinez Huerta(멕시코)
- ④ Joshua Coleman(미국)

❖ 결승

장종오(한국) 5-(-1) Bahri Tanrikulu(터키)

❖ 준결승

장종오(한국) 6-0 Rodrigo Martinez Huerta(멕시코)

Bahri Tanrikulu(터키) 6-0 Joshua Coleman(미국)

■미들급

- ① M. Aflakikhamseh(이란)
- ② Yasin Yagiz(터키)
- ③ Saginolykov Adiulkhan(카자흐스탄)
- ④ Faissal Ebnoutalib(독일)

❖ 결승

M. Aflakikhamseh(이란) 7-4 Yasin Yagiz(터키)

❖ 준결승

Yasin Yagiz(터키) 3-0 Saginolykov Adiulkhan(카자흐스탄)

M. Aflakikhamseh(이란) 5-4 Faissal Ebnoutalib(독일)

■헤비급

- ① 문대성(한국)
- ② Mictar Dounbia(프랑스)
- ③ Daniel Trenton(호주)
- ④ Montesinos Ruben(스페인)

❖ 결승

문대성(한국) 3-1 Mictar Dounbia(프랑스)

❖ 준결승

문대성(한국) 7-5 Daniel Trenton(호주)

Mictar Dounbia(프랑스) 3-2 Montesinos Ruben(스페인)

* 여자부 경기전적 *

■핀급

① Asensio Belen(스페인)

② 윤송희(한국)

③ France Pouzoulet(프랑스)

④ Kadriye Selimogou(터키)

❑결승

Asensio Belen(스페인) 5-4 윤송희(한국)

❑준결승

윤송희(한국) 11-0 France Pouzoulet(프랑스)

Asensio Belen(스페인) 3-0 Kadriye Selimogou(터키)

■플라이급

① Shu Ju Chi(대만)

② 심혜영(한국)

③ Jennifer Delgado(스페인)

④ Guiru Yuan(중국)

❑결승

Shu Ju Chi(대만) 4-2 심혜영(한국)

❑준결승

Shu Ju Chi(대만) 2-0 Jennifer Delgado(스페인)

심혜영(한국) 3-0 Guiru Yuan(중국)

■bantam급

① Wang Su(중국)

② 정재은(한국)

③ Mei-Chun Meng(대만)

④ Christiana Back(스위스)

❑결승

Wang Su(중국) 2-1 정재은(한국)

❑준결승

정재은(한국) 3-2 Meng(대만)

Wang Su(중국) 3-(-1) Christiana Back(스위스)

■페더급

① 강해은(한국)

② Iridia Salazar - Blanco(멕시코)

③ Gael Texier(캐나다)

④ Sonia Reyes(스페인)

❑결승

강해은(한국) 우세승 -2 Iridia Salazar-Blanco(멕시코)

❑준결승

Iridia Salazar - Blanco(멕시코) 1-0 Gael Texier(캐나다)

강해은(한국) 3-1 Sonia Reyes(스페인)

■라이트급

① 조항미(한국)

② Hui Jing Zhang(중국)

③ Lisa O' keefe(호주)

④ Ekaterina Noskova(러시아)

❑결승

조항미(한국) 3-0 Hui Jing Zhang(중국)

❑준결승

조항미(한국) 7-3 Lisa O' keefe - (호주)

Hui Jing Zhang(중국) 13-6 Ekaterina Noskova(러시아)

■웰터급

① Elena Benitez(스페인)

② Mirjam Muskens(네덜란드)

③ Wan Chen Chang(대만)

④ Barbara Pak(캐나다)

❑결승

Elena Benitez(스페인) 4-3 Mirjam Muskens(네덜란드)

❑준결승

Mirjam Muskens(네덜란드) 8-7 Wan Chen Chang(대만)

Elena Benitez(스페인) 우세승 5-5 Barbara Pak(캐나다)

■미들급

① 김윤경(한국)

② Lallana Ibone(스페인)

③ Zhong Chen(중국)

④ Filiz Aydin(터키)

❑결승

김윤경(한국) 2-1 Lallana Ibone(스페인)

❑준결승

김윤경(한국) 2-0 Zhong Chen(중국)

Lallana Ibone(스페인) 1-0 Filiz Aydin(터키)

■헤비급

① Ching Yi Kao(대만)

② Dominique Bosshart(캐나다)

③ Maria Koniakhina(러시아)

④ Laurence Rase(벨기에)

❑결승

Ching Yi Kao(대만) 12-11 Dominique Bosshart(캐나다)

❑준결승

Dominique Bosshart(캐나다) 2-1 Maria Koniakhina(러시아)

Ching Yi Kao(대만) 9-2 Laurence Rase(벨기에)

❖ 최우수선수상 : 사마란치 IOC 위원장패 수상

남자 : 윤종일(한국) - 플라이급 우승

여자 : Wang Su(중국) - 뱅텀급 우승

❖ 페어플레이상

남자 : M. Afkikhhamseh (이란) - 미들급 우승

여자 : Elena Benitez(스페인) - 웰터급 우승

❖ 참가상

콜롬비아, 케냐, 가나

경기
분석

제 2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5월 29일~6월 1일 · 제주시 생활체육관)



남중부 플라이급 결승에서 강혁준(대전·왼쪽)의 오른발 뛰어뒤탈차기 공격을 한찬석(제주)이 날렵하게 피하고 있다. 한찬석이 1-0으로 승리.

태권도 꿈나무들, 수준높은 경기력 보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란 구호를 내걸고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 동안 제주시 일원에서 힘과 기량을 겨뤘던 ‘새싹들의 잔치’ 제 2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한국 신기록 18개 등 풍성한 기록을 남긴 채 폐막했다.

태권도 경기는 제주시 생활체육관에서 전국의 16개 시도 대표선수들이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전을 펼쳤다.

남자 중등부는 예년에 비해 수준높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전북이 3체급을 석권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고 이어 개최도인 제주가 열띤 응원

에 힘입어 2체급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남자 초등부는 선수들간에 실력차가 심해 예선전에서는 주심직권승(RSC)과 높은 득점차에 의해 승부가 가려졌다.

그러나 준결과 결승에 오른 선수들은 대부분 유연성이 뛰어난 데다 기술면에서도 대등한 면을 보이며 시도간 팽팽한 점전의 연속이었는데 11체급 광주와 경남이 각각 2체급씩 석권했다.

한편 시범경기로 펼쳐진 여자 중등부 경기는 서울이 7체급 출전자 모두 임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선수들간 기량차 심해 RSC승 속출한 남자 초등부 경기 광주와 경남이 각각 2체급씩 석권

태권도 꿈나무들인 남자 초등부 경기는 선수들의 뛰어난 순발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박진감 넘친 경기가 계속되었는데 광주와 경남은 각각 2체급씩 금메달을 차지했고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북이 각각 한 체급씩 금메달을 나누어 가졌다.

라이트급의 강세현(대전)은 초등학교생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운영과 다양한 기술로 1, 2차 예선에서

모두 5-0으로 RSC승을 거두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결승에 올라, 강원의 손태선에게 우승으로 어렵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터급의 임동욱(경남)은 결승에서 대전의 윤범진을 맞아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점전끝에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서울의 노성호와 울산의 이승만이 붙은 미들급 결승전은 무려 11점이라는 많은 득점이 쏟아져 나

왔다. 설새없는 공격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였으나 3회전 체력이 앞선 이승만이 얼굴 공격을 연속으로 적중시키며 7-4로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결승전에 앞서 펼쳐진 플라이급 충남의 이성규와 제주의 임창현이 마주한 준결승전은 흥미진진한 역전의 드라마였다. 경기 종료 5초를 남겨두었

을 때 임창현의 돌려차기가 이성규의 몸통을 적중하자, 전광판은 5대 5(-1). 임창현은 승리를 확신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너무도 짧았다. 전광판의 시계가 종료를 알리고 동시에 이성규가 임창현의 얼굴을 돌려차기로 강타한 것이다.

남자 중등부 - 전북 3체급 우승하며 최강 자랑

남자중등부 경기는 전북의 화려한 무대였다.

전북은 판급 김경수, 라이트급 이송룡, 라이트 헤비급 신창용이 금메달을 따냈고, 밴텀급 박경제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16개 시도 중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개최도인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킨 결과 플라이급 한찬식, 페더급 김천권이 금메달, 라이트급 윤달호, 미들급 김상수가 동메달을 따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판급의 김경수(전북)는 선제공격으로 득점을 올리고 빠른 순발력으로 빠져나오는 작전으로 대전

의 이민호, 제주의 이영광, 경북의 김수영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경기의 김민욱에게 뒷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라이트급의 이송룡은 다양한 기술, 발차기를 자랑하는 가운데 무난히 결승에 올라 대전의 홍영기를 맞아 빠른발 돌려차기와 몸통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2-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제주의 한찬식은 차분한 경기운영으로 경기의 김복기, 강원외의 임정현을 각각 1-0으로 이기고 플라이급 결승에 올라 대전의 강혁준을 맞아 2회에 몸통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1-0으로 승리를 거두어 제주 응원단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화제의 인물

여중부 라이트급 우승 송명신 (제주여중 3학년)

지난해 우승자 누르고 떠오른 “새별” 유연성과 발기술 뛰어나 - 국가대표가 꿈



소년체전 여중부 라이트급 경기는 예상을 뒤엎고 무명의 송명신(제주여중 3학년)이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었다. 개최도인 제주의 송명신과 경기의 김새롬이 맞붙은 결승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태권도 관계자들은 경기의 김새롬이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김새롬은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해 이미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갖고 있는 데다 중고연맹대회 우승, 제 2회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차세대 국가대표 유망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도 1차 예선전부터 뛰어난 기량으로 2회 5-0으로 RSC를 거두는 등

결승전에 오르는 동안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김새롬과 송명신의 결승전 경기는 1회 초반 송명신이 뒷차기로 득점을 빼앗으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두 선수 모두 유연성이 좋은 데다 공격형이라 설새없이 공격을 주고 받아 3회 종료전 2-2동점까지 가는 박진감 넘친 경기가 계속되었는데 종료 직전 송명신이 뒷차기를 성공시키며 3-2로 승리를 거둔 것.

송명신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북체육관(관장 공철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도 대회를 휩쓸며 신인 유망주로 떠올라 선배들을 누르고 1학년과 2학년 때 소년체전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는 김새롬을 이김으로써 새로운 유망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송명신을 지도한 공철국 관장은 “송명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매우 잘해 상위권이다. 순발력과 유연성, 발차기, 뒷차기, 매우 뛰어난 선수이다. 앞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공격 기술을 익히면 우수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여중부 7체급 출전해 모두 입상 영광

시범종목인 여중부 경기에서는 서울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은 7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개, 은 1, 동 1개를 차지, 선수 전원이 입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라이트 웰터급에 출전한 유기정은 다양한 공격으로 예선서 경북의 박미영을 6-0의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라 제주의 한효진에게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결승에 진출했다.

상대방은 준결에서 충북의 최은미를 3회 3-0에 RSC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경기의 안혜미. 두 선수는 열띤 공격을 펼쳤으나 상대방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3회전에 오를 때까지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3회 두 선수 모두 금메달을 향해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가운데 뒤틀

차기로 득점을 주고 받아 1-1동점을 이루고 경기가 종료되었다. 주심은 다양한 공격을 퍼부은 서울의 유기정에게 우세승을 선언했다.

웰터급의 전은경은 월등한 기량으로 예선부터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 예선에서 경남의 김아리란을 6-1에 3회 RSC승을 거두었고 이어 제주의 진미화를 5-0에 3회 RSC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충북의 정선영에게 원발 돌려차기와 받아차기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부산 하정현과 만만치 않은 접전을 펼쳤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체력으로 설세없이 공격을 퍼부어 열기를 더했는데 경기종료 직전 뒤돌려차기로 연속 득점을 올린 전은경이 5-3으로 정상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 김 경 수 (전북 옥구중 3학년)

승부근성으로 힘든 합숙 훈련 이겨낸 미완의 대기

"제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상진 코치 선생님과 도장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면서 태권도를 지도해주신 김기중 관장님, 늘 경기장과 훈련장을 찾아와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선제공격을 퍼부으며 뛰어난 뒷차기로 남자 중등부 핀급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경수 (전북 옥구중학교 3학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합숙훈련은 매우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김경수는 소년체전을 앞두고 20일간의 합숙훈련기간 동안 마라톤 코스인 43km를 두번이나 완주하는 등 강한 체력 훈련으로 경기마다 2분 30회전을 뛰고도 힘이 남았을 정도로 체력을 길렀고, 기량이 한 수 위인 전북체고 선수를과의 실전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키웠던 것이 승리의 요

인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가대표 출신인 최상진 코치로부터 공격형 선제 공격방법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매회전 한점도 내주지 않고 높은 득점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4차례의 경기 중 김경수는 모두 8득점을 올린 반면 1점도 뺏기지 않는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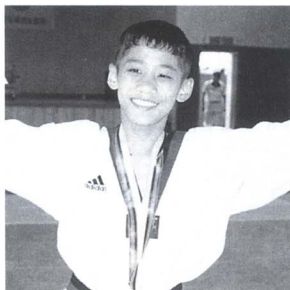
스텝이 굉장히 빠른 김경수는 차고 빨리 빠져 상대방이 공격해올 틈과 거리를 주지 않았다.

전북대표팀 코치로 김경수를 지도한 최상진 코치는 "아무리 힘든 훈련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승부근성이 뛰어난 선수이다. 순발력과 스텝이 매우 좋고 연결동작과 반사신경이 뛰어나다."

앞으로 선제공격할 때 빠른발 기술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그는 김경수를 매우 장래가 촉망되

는 선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량급 대표로 세계 선수권대회를 3연패한 진승태(한국가스공사)를 가장 좋아한다는 김경수는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새롭게 의지를 불태웠다.



입상자 명단

		남중부			여중부			초등부		
체급	등위	이름	소속	시·도	이름	소속	시·도	이름	소속	시·도
핀	1	김경수	옥구중	전북	사영주	조치원여중	충남	정요한	아양초	대구
	2	김민욱	울산중	경기	이미란	봉의여중	강원	김정우	위미초	제주
	3	김수영	영신중	경북	정민아	만월중	인천	김정민	산척초	충북
		주재현	울산중	울산	나인숙	동방여중	대전	윤희중	청림초	경북
플라이	1	한천식	조천중	제주	성아영	조치원여중	충남	노광호	경수초	서울
	2	강혁준	오정중	대전	신여진	합덕중	제주	이성규	청파초	충남
	3	임정철	강원중	강원	고아름	평원중	강원	임창현	구좌중앙초	제주
밴텀		김병철	울산중	울산	김보라	구운중	경기	김민성	동부초	경남
	1	이민호	천안북중	충남	황경선	동화중	경기	길용준	홍천초	강원
	2	박경재	기린중	전북	이은화	본리여중	대구	정수호	구운초	경기
	3	장세민	경북체중	경북	강진희	표선중	제주	송문철	삼양초	제주
페더		최승록	청주중	충북	윤혜정	남산중	경남	김수영	백운초	대전
	1	김천권	조천중	제주	정재영	대전체중	대전	김성모	금호초	광주
	2	서동희	충주중	충북	최민	중화중	서울	정성훈	부천초	전북
	3	김진영	와룡중	대구	김계화	신당여중	대구	김찬환	동명초	충북
라이트		강우성	공주중	충남	김은진	진성여중	전북	정택우	성주초	경남
	1	이승용	양지중	전북	송경신	제주여중	제주	강세현	홍릉초	대전
	2	홍영진	대전체중	대전	김세룡	구운중	경기	손태신	근화초	강원
	3	윤달호	귀일중	제주	박지연	상무중	광주	진해운	목포동초	전남
L-웰터		이성수	신암중	대구	김혜미	웅남중	경남	조한규	구운초	경기
	1	안기훈	광주체중	광주	유기정	웅곡중	서울	최성필	오치초	광주
	2	최민형	조치원중	충남	안혜미	부인중	경기	조동신	전주북초	전북
	3	노찬호	오정중	대전	한효진	합덕중	제주	김정수	부여초	충남
웰터		백근태	대동중	경북	최은미	신명중	충북	정유철	홍릉초	대전
	1	송영성	성곡중	경기	전은경	중화중	서울	임동욱	구암초	경남
	2	양기호	사당중	서울	하정연	부산동여중	부산	윤범진	봉산초	대전
	3	한지완	백양중	부산	박미정	본리여중	대구	이기섭	청파초	충남
L-미들		김성규	강원중	강원	정선영	신명중	충북	이인희	대자초	광주
	1	김기표	대동중	경북	최진미	오금중	서울	염진호	고령초	경북
	2	원세중	구월중	인천	강진하	합덕중	제주	이명훈	아양초	대구
	3	김병수	신암중	대구	이상혜	본리여중	대구	오영택	위미초	제주
미들		최종락	제천중	충북	지미경	부인중	경기	박민제	옥서초	울산
	1	김길성	경수중	서울	최정애	중화중	서울	이승민	삼일초	울산
	2	조바로	신암중	대구	나은경	평원중	강원	노성호	경수초	서울
	3	김상수	조천중	제주	정경자	본리여중	대구	곽진환	용마초	경기
L-헤비		우종민	경북체중	경북	손은희	홍해중	경북	이상원	구암초	대구
	1	신창용	양지중	전북	이아름	오금중	서울	박진석	양곡초	경남
	2	이민혁	신관중	서울	최경화	만수여중	인천	한승연	상인천초	인천
	3	박종혁	청주중	충북	손혜민	평원중	강원	김남진	청호초	강원
헤비		이상현	유현중	인천	허안라	황산중	전남	이상진	신정초	전남
	1	박현오	구월중	인천	박명은	본리여중	대구	김성룡	익산동초	전북
	2	고윤석	고려중	광주	박지혜	홍해중	경북	김인규	구암초	대구
	3	윤대원	사당중	서울	장유진	웅곡중	서울	김경대	제주북초	제주
		이승세	백양중	부산	김정희	내동중	경남	박정호	양전초	부산

제 2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5월 7일~16일 · 양구실내체육관)

경기
분석



남고부 밴텀급 준결에서 동천고의 김철민(오른쪽)이 경남체고 서혜진에게 오른발 뒷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김철민이 3-2로 승리.

체력과 기술 뛰어난 차세대 유망주들 “눈에 띄네”

한국중고태권도연맹은 지난 5월 7일부터 16일
까지 10일간 강원도 양구 실내체육관에서 제
2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
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285개 중고등학교에서

1,86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었는데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기량을 보인 가운데 부산
동천고와 송곡여고가 고등부 우승을, 부천 성
곡중학교와 서울 중화중학교가 남·녀 중등부
최강을 자랑하며 우승기를 가져갔다.

고등부 경기분석

부산 동천고 · 송곡여고 남녀 고등부 정상 정영한(남) · 김경희(여) 최우수선수상 수상

부산 동천고는 뛰어난 경기감각을 갖춘 정영한이
미들급 우승을 차지하는 등 급 1, 은 1, 동 1개를

획득, 종합우승이 예상됐던 인천 선인고와 서울체
고를 2, 3위로 밀어내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여자 고등부에서는 송곡여고가 차세대 국가대표 유망주 김경희와 김우희, 윤현숙이 체급별 정상에 오르며 금 3개를 따내 금 1, 은 2개에 그친 경성여실고를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고등부 미들급 결승에서 정영한(동천고)은 박제현(송곡고)을 맞아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을 구사하며 2-1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미들급 우승과 함께 부산 동천고를 종합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정영한은 반여중학교 3학년 때 전국중별선수권대회에서 헤비급 동메달을 따내며 전국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소년체전에서 라이트 헤비급 은메달을 차지하며 꿈나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동천고에 진학 후 1학년 때 용인대총장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고 지난해 문화관광부장관기 중고연맹대회 3위, 전국체전 미들급 3위를 차지하며 기량을 키워왔는데 올해 한층 성숙된 기량을 보여주었다.

한편 핀급 결승에서 윤상호(선인고)는 강진규(강원체고)를 맞아 원발 몸통돌려차기와 오른발 받아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2-0으로 물리쳤고, 라이트급 결승에서 조은영(대전체고)은 김택희(송곡고)와 맞서 원발 뒷차기와 원발 몸통 돌려차기 공격을 성공시켜 2-0완승을 거뒀다.

또 밴텀급 결승에서 남성은(동원고)은 김철민(동천고)을 맞아 2회전에 원발 나래차기를 성공시켜 1-0으로 판정승했고, 웰터급 결승에서 이현수(경상공고)는 박성호(부산체고)를 맞아 노련한 경기를 펼치며 원발 몸통 돌려차기와 오른발 뒷차기를 구사, 5-3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고등부 경기에서는 차세대 국가대표 유망주들의 활약이 컸다.

특히 송곡여고는 플라이트급 김경희, 라이트급 김우희, 헤비급 윤현숙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승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김경희는 앞발 상단을 주특기로 예선부터 가볍게 상대선수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플라이트급 결승에 진출, 수내고의 김선희와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었다.

올해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결승에서 심혜영(에스원)에 패해 플라이트급 2진으로 선발되며 두각을 나타낸 김경희는 이번 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여고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손꼽혔다.

김우희는 라이트급 결승에서 박지현(고양중고)을 맞아 원발 몸통 돌려차기와 원발 들어찍기를 성공시켜 2-0으로 여자 고등부 라이트급 정상에 올랐다.

윤현숙은 헤비급 결승에서 경성여실고 한현아와 치열한 접전 끝에 뒷차기로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1-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핀급은 예상했던대로 올해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며 두각을 나타낸 이혜영(수원정보산업고)이 정상을 차지했다.

이혜영은 결승에서 이아름(고령실고)을 맞아 2회전에서 원발 얼굴찍기를 성공시키며 1-0으로 판정승했다. 이혜영은 신장이 큰 데다 다양한 기술, 체력까지 갖추고 있어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또 밴텀급 결승에서 장은숙(효성고)은 전남수(경성여실고)를 맞아 매회전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3회 종료 직전 원발 몸통 돌려차기를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중별선수권대회에서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장은숙은 지난 4월 용인대총장기에 이어 이번에 중고연맹대회에서 우승, 차세대 유망주로 떠올랐다.

한편 올해 국가대표선발전 2차 예선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종전에 진출해 인천시청의 윤명숙에게 간발의 차이로 우세패를 하고 탈락한 리라공고의 간판선수 윤성희는 밴텀급 결승에 올라 강화여고 염정화를 2-0으로 가볍게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남녀 고등부 종합우승을 이끈 부산 동천고 김태형 코치와 송곡여고 김성진 코치는 지도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 경기분석

부천 성곡중 · 서울 중화중 남녀 종합우승 차세대 유망주 조민기(남) · 최정애(여) 최우수선수상

남자 중등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부천 성곡중이 금 1, 은 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대구 신암중이 금 1, 은 1, 동 1개로 준우승을, 서울 경수중이 금 1, 동 1개로 3위

를 차지했다.

한편 구윤중, 역삼중, 공주중, 부천동중, 고양중, 포항대동중, 신관중, 부안중이 각각 금메달 한개씩을 따내며 전국적으로 평균화된 기량을 보였다.

미래의 꿈나무들인 중학생들의 경기는 박진감 넘친 경기의 연속이었는데 플라이급 결승에서 부천 성곡중 조민기는 대구 신암중 박창민을 맞아 원발 나래차기로 득점, 1-0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뛰어난 기본기에 빠른 발차기로 다양한 기술을 발휘한 조민기는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남자 최우수 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 라이트급 결승에서 대구 신암중 이성수는 백양중 오정현과 맞서 원발 몸통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2-1로 승리를 거뒀다.

미들급 결승에서 경주중 김길성은 서울 사당중 양경훈을 맞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접전을 펼쳐 2-2 동점에 우세승을 차지하며 체급 정상에 올랐다.

여중부는 서울 중화중이 임양은(라이트 웰터급), 최정애(미들급)가 금메달, 최민(페더급)이 은메달을 따내는 수훈에 힘입어 우승기를 가져갔다.

간발의 차로 준우승을 차지한 서울 오금중학교는 최진미(라이트 미들급)와 이아롱(라이트 헤비급)이 금메달, 김아름(라이트 웰터급)이 은메달을 따냈다.

한편 인천 부흥중이 오정아(페더급)가 금메달, 원유진(관급)과 김미화(미들급)가 은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만수여중, 이천 양정여중, 동화중, 구윤중, 남산중, 본리여중이 각각 체급별 우승자를 배출했다.

서울 중화중의 최정애는 뛰어난 기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예선전부터 많은 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 1차 예선서 평원중의 나은경을 6-2로 누르고 8강에 올라 만수여중의 이인희를 맞아 원발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며 4-0으로 득점차를 크게 벌리고 RSC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준결에서도 대구 본리여중의 정영자를 맞아 원발 돌려차기 등을 몸통에 성공시키며 3-1로 가볍게 우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인천 부흥중의 김미화와 서로 득점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 끝에 1-1 동점을 이루는 가운데 우세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라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을 받았다.

라이트미들급의 최진미(오금중)는 결승에서 대구 본리여중의 이성혜를 맞아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4-2로 체급 정상에 올랐다.

페더급의 오정아(인천 부흥중)는 뛰어난 순발력과 경기감각으로 매경기마다 높은 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떠올랐다.

오정아는 봉의여중의 김지은, 남산중의 정송이, 원일중의 박혜진을 차례로 4-0에 RSC승으로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준결에 올라 계산여중의 김진미를 역시 4-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중화중의 최민을 맞은 오정아는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원발 몸통 돌려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3-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뛰어난 지도력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문수 부천 성곡중 김문수 코치와 중화중 이두희 코치는 각각 지도상을 수상했다.

종합 성적

	남 고 부	여 고 부	남 중 부	여 중 부
종합우승	부산 동천고	송곡여고	부천 성곡중	서울 중화중
종합준우승	인천 선인고	경성여실	대구 신암중	서울 오금중
3위	서울 체육고	서울 체육고	서울 경수중	인천 부흥중
감투상	대전 체육고	경기 효성고	서울 역삼중	대구 본리여중
장려상	경기 효성고	양구여고	부산 향도중	춘천 봉의여지중
최우수선수상	정영현(부산동천고)	김경희(송곡여고)	조민기(부천 성곡중)	최정애(서울 중화중)
지도상	김태형(부산 동천고 코치)	김성진(송곡여고 코치)	김문수(부천성곡중 코치)	이두희(중화중 코치)

입상자 명단

		남 고 부		여 고 부		남 중 부		여 중 부	
체급	등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	1	윤상호	선인고	이혜영	수원정보산고	김민욱	구운중	김진란	만수여중
	2	강진규	강원체고	이아름	고령실고	이현진	은행중	원유진	인천 부흥중
	3	최연호	문성고	조선희	충남체고	이병곤	경수중	이미란	봉의여중
		황광엽	단대부고	정혜리	효성고	고진호	화도진중	안지은	대원여중
플라이	1	임용식	고령실고	김경희	송곡여고	조민기	부천 성곡중	김수양	이천 양정여중
	2	한승룡	남녕고	김선희	수내고	박창민	신암중	김민정	부산 동여중
	3	정근호	부평기고	박현미	군산중앙여고	황준영	한성중	윤성미	원일중
		백봉현	동성고	이지혜	서울체고	김복기	정지중	최선영	만수여중
밴텀	1	남상은	동원고	장은숙	효성고	김대운	역삼중	황경선	동화중
	2	김철민	동천고	전남수	경성여자실고	장성건	곡산중	윤혜정	남산중
	3	이해민	선인고	이혜선	충북체고	안병웅	이동중	김민경	대원여중
		서해진	경남체고	이종민	서울체고	남궁수	강화중	전미정	인천 만월중
페더	1	류준수	태성고	윤성희	리라공고	강우성	공주중	오정아	인천 부흥중
	2	임대호	충북체고	염정화	강화여고	금시환	반여중	최 민	중화중
	3	남윤해	순천공고	장인영	구남여자경영정보고	이근우	역삼중	김진미	계산여중
		이행구	천안농고	장보성	부산체고	권영기	성남동중	신현주	구운중
라이트	1	조은영	대전체고	김우희	송곡여고	이성수	신암중	김새롬	구운중
	2	김택희	송곡고	박지현	고양중고	오정현	백양중	박지연	상무중
	3	최기정	충남체고	이은경	수내고	신선수	울산중	김희순	용곡중
		유지상	강원체고	김희정	배성여자상고	김지일	용곡중	정진이	부인중
L- 웰터	1			문신우	부천동중	이양은	부천동중	임양은	중화중
	2			이상엽	용곡중	김아름	오금중	김아름	오금중
	3			이경묵	신관중	최은숙	청량중	최은숙	청량중
				박종섭	오금중	유기정	용곡중	유기정	용곡중
웰터	1	이현수	경상공고	김연지	서울체고	정원진	고양중	강정미	남산중
	2	박상호	부산체고	배은주	송곡정보산고	송명식	부천 성곡중	이지연	부천 부인중
	3	유든영	강원체고	한미주	경북체고	김은성	전주 기린중	김지혜	근명여중
		김화환	대전체고	홍지연	계산여고	한지완	부산 백양중	양지은	신관중
L-미들	1			김기표	포항 대동중	최진미	오금중	최진미	오금중
	2			전상운	부천 성곡중	이상혜	본리여중	이상혜	본리여중
	3			김병수	신암중	심다희	근명여중	심다희	근명여중
				이유환	반여중	최상희	만월중	최상희	만월중
미들	1	정영한	동천고	장성연	경성여자실고	김길성	서울 경수중	최정애	서울 중화중
	2	박재현	송곡고	장정윤	부산체고	양경호	서울 사당중	김미하	인천 부흥중
	3	임석준	선성고	양달복	관악정보산고	김용준	서울 오금중	정경자	대구 본리여중
		이원삼	서울체고	김순기	충북체고	김성환	대구 오성중	연은실	성남 은행중
L-헤비	1			이민혁	신관중	이아름	서울 오금중	이아름	서울 오금중
	2			정현철	관고중	김용하	서울 문영여중	김용하	서울 문영여중
	3			우종민	경북 체중	정윤주	성남 대원여중	정윤주	성남 대원여중
				김유진	부천 부흥중	심지희	안양 근명중	심지희	안양 근명중
헤비	1	윤원중	서울체고	윤현숙	송곡여고	최양규	부안중	박명은	본리여중
	2	홍택수	동성고	한현아	경성여자실고	박현오	구월중	정유진	용곡중
	3	김성근	금정고	한다운	계산여고	소순용	경북체중	김현아	만월중
		우현동	동천고	고진숙	부산체고	이승수	부산항도중	방미성	연수중

4년만에 정상탈환 성공한 서울체고(남)



남자 미들급 16강전에서 경성공고 이현수(오른쪽)와 선인고 유재원이 만났다. 이현수는 4-0으로 크게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 은메달을 차지했다.

제 11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태권도대회

서울체고와 수내고가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11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태권도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정상 차지했다.

전국의 165개 학교에서 94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대회의 남고부 경기에서 서울체고는 박관욱(핀급)과 박태열(밴더급)이 각각 금메달, 김재식(플라이급), 박상권(페더급)이 동메달을 획

득함으로써,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지난 95년 7회 대회에 이어 4년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기쁨을 누렸다.

여자부에서는 수내고가 최초로 전국 무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수내고는 라이트급 이은경(라이트급)이 금메달, 안정아(플라이급)가 은메달, 조선미(페더급)가 동메달을 따내며 돌풍을 일으켰다.

남자 핀급우승 차지한 서울체고 박관욱

유연성과 다양한 발차기 공격 -최우수선수상 수상

남자고등부는 금 2 동 2개를 획득한 서울체고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강원체고가 금 2로 준우승, 경성공고가 금 1, 은 1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태성고도 금 1, 동 1개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동성고는 라이트급 엄태영이 정상을 차지하는데 그쳐 순위에서 밀려났다.

남고부 핀급 경기에는 모두 91명이 출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모두 7번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결승에 오른 선수는 박관욱

(서울체고)과 박형순(청주 신흥고).

두 선수 모두 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진감 넘친 경기를 보여주었는데 박관욱이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2-1로 승리를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고, 남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고부 페더급 결승에서는 태성고의 류준수가 리라공고의 김영백을 맞이해 다양한 기술로 득점을 올렸고, 특히 몸통 내려차기 기술을 주특기로 5-1 판정승을 거두고 가볍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더급 경기에서는 준결에서 풍성고의 박태성을

수내고(여)는 첫 종합우승 레거 기록해

1-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유돈영(강원체고)과 송곡고의 장지호를 2-2에서 우세승으로 이기고 어렵게 결승에 오른 임채실(여수고)이 결승에 올라와 기량을 겨두었는데 유돈영이 2-0으로 체급 정상에 올랐다. 유돈영은 붙어서 짧게 몸통 공격을 하는 전략을 펴며 상대방을 오른발 뒷차기와 받아차기를 몰아붙였다.

한편 헤비급은 준결에서 동천고의 우현승에게 2-

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경상공고의 김민석과 준결에서 태성고 김유한을 3-0으로 이기고 올라온 개금고 이승남의 한판 승부였다.

김민석은 몸통 연속 공격과 얼굴 공격으로 득점을 얻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고, 이승남도 뛰어난 체력으로 뒷차기를 성공시키며 득점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김민석이 4-3으로 승리를 거두고 신인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왼발 얼굴 공격 주특기인

수내고 이은경

라이트급 우승에 여자 최우수선수상 수상

여고부 경기에서는 무명의 수내고가 태권도 명문팀을 차례로 누르고 간발의 차로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이어 진영정보고가 금 1, 동 2개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체고는 금 1, 동 1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고양중고는 8장에 모두 4명이 진출했으나 미들급의 전경아만이 승

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따내고 나머지 3명은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여자 핀급 결승은 경성여실고 최준정이 김제 덕암고 채선아를 맞아 상대방의 뛰어들어오는 공격을 피하며 오른발 뒷차기로 몸통 받아차기를 성공시키는 가운데 연속 2득점을 획득했고 짧은 거리에서 몸통 공격을 퍼붓는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3-0으로 가볍게 승리를

화제의 인물

남자 헤비급 우승자 김민석 (경상공고)

"제 2의 김제경"으로 주목받아

남자 헤비급 우승을 차지한 경상공고 김민석(경상공고 1학년)은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6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매회 뛰어난 기술 발휘로 RSC승과 K.O승을 거두며 체급 정상에 올라 "제 2의 김제경"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제 뒷바라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드려서 기쁩니다. 또한 항상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임성욱 코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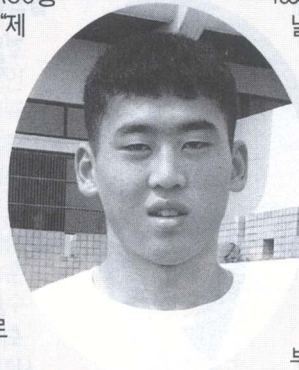
김민석은 지난해 대구 신암중 3학년 때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공격과 스피드를 자랑하며 소년체전 우승 뿐만 아니라 각종 전국 무대를 휩쓸어 차세대 헤비급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 고등학교(경상공고)로 진학한 뒤 기량을 점검한 첫 시험무대였던 중별선수권대회에서 K.O승으로 헤비급 정상에 올라 대회를 지켜본 관

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김제경의 뒤를 이을 선수로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았던 것.

185cm에 88kg인 김민석은 연속 공격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오른발 뒷차기, 얼굴 공격 등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석을 지도하고 있는 경상공고 임성욱 코치는 "중량급에도 불구하고 경량급 못지 않는 스텝을 갖고 있으며 경기 감각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다. 근력이 달리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상체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코치는 김민석에 대해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면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와 바른 심성,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대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했다.



거두었다.

여자 플라이급 결승은 목포상고 김수경이 수내고 안정아를 맞붙어서 몸통을 짧게 공격하는 전략을 펴며 3-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었다.

여자 밴텀급 결승에서 진영정보고의 손화정은 고창여고의 한혜진을 맞아 3-0에 RSC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손화정은 스텝이 매우 좋고 발차기 기술을 매우 다양하게 구사, 차기 유망주로 꼽혔다.

페더급은 준결에서 고양중고 김민아에게 우세승으로 결승에 오른 충남체고의 장부자와 완악정보고의 현지육에게 2-1로 승리를 거둔 강화여중고 엄정화가 올라와 체급 정상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엄정화는 앞발 몸통 공격과 오른발 받아차기 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장부자는 빠른발로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득점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끝에 2-2동점을 이루었으나 엄정화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여자 웰터급은 서울체고 김혜미와 송곡여자정보산업고의 배은주가 결승에 올라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김혜미는 오른발 뒷차기, 받아차기를 주특기로 공격과 방어에 뛰어난 노련미를 보이는 가운데 3-2로 승리를 거두었다.

여자 헤비급은 준결승에서 금정여고 최재희를 5-2로 이기고 결승에 오른 충북체고 김순기와 가정고 정소영을 1-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오른 박연정이 격돌한 끝에 4-2로 김순기가 승리를 거두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기는 오른발 몸통 공격과 뒷차기 기술이 뛰어났으며 공격과 방어 능력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다. 반면 박연정은 뛰어난 경기감각과 노련미를 보이며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쳤다. 김순기는 지난해 경희대총장기 헤비급 결승에서 리라공고의 박연정에게 9-4로 패배했는데 이번엔 한층 성숙된 기량을 보이며 설욕전을 펼쳐 앞으로 기대 가능성을 엿보였다.

라이트급에 출전한 이은경(수내고)은 결승에서 군자공고의 이선주를 맞아 2-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은경은 왼발 몸통공격과 왼발 얼굴공격 등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는 가운데 체급 정상에 올라 여자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 미들급 전경아(고양중고)는 결승에서 경남체고 이선영을 맞아 앞발로 얼굴공격을 성공시키는 가운데 3-2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화제의 인물

강력한 라이벌 제치고 여자 헤비급 우승한 김순기 (충북체고) 리라공고 박연정과 6번째 결승전에서 만나 "3승 3패"

여자 고교생 헤비급선수 중에는 박연정(리라공고)과 김순기(충북체고)가 라이벌로 꼽힌다.

김순기와 박연정은 지난해 경희대총장기대회 때부터 시작해 이번 대회까지 결승서만 6번째 만난 사이.

지난해 경희대 총장기대회 때는 박연정이 빠른발을 주특기로 승리를 거둔 반면, 전국체전에서는 김순기가 오른발 공격을 앞세워 금메달을 따내며 승리를 주고받았다. 이후에도 김순기와 박연정은 헤비급에서 여러 차례 경기를 갖게 되어 2승 3패를 기록하며 약간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꼭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연정의 주특기인 빠른발에 대비해 받아차기 기술을 주특기로 개발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노



력한 대기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김순기는 이번 승리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며 좀 더 열심히 노력해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다. 김순기를 지도하는 김구환 코치는 "빠른발 공격시 사이드로 빠져 왼발 받아차기와 오른발 스텝을 이용한 받아차기 기술이 적중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연결동작을 기르고 스피드 훈련을 보완하면 대성할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했다.

176cm에 72kg인 김순기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으로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시간이 날 때는 항상 책을 읽는다는 김순기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감명깊게 읽었다며 최근엔 <내 영혼을 위한 달고기 스프>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문학소녀이기도 하다.

종합성적표

남 고 부

여 고 부

순위	팀(학교명)	금	은	동	팀(학교명)	금	은	동
우승	서울체고	2		2	수내고교	1	1	1
준우승	강원체고	2			진영정보고	1		2
3위	경상공고	1	1		서울체고	1		1
감투상	태성고	1		1	고양중고	1		
장려상	관악정보고				목포여상			
우수선수	박관욱(서울체고)				이은경(수내고교)			
지도상	김봉석(서울체고 코치)				손병욱(수내고 코치)			

입상자 명단

남 고 부

여 고 부

체급	등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급	1	박관욱	서울체고	최준정	경성여실고
	2	박형순	청주 신흥고	채선민	덕암고
	3	이은석	고양중고	조혜정	진영정보고
플라이급	1	박현우	관악정보고	박효주	서울체고
	2	박경석	한성고	김수경	목포상고
	3	김영봉	인천전공고	안정아	수내고
밴텀급	1	한승룡	제주 남녕고	추한나	영송여고
	2	김재식	서울체고	김경희	송곡여고
	3	박태열	서울체고	손화정	진영정보고
페더급	1	김종덕	충북체고	한혜진	고창여고
	2	문화선	강화고	추정미	영송여고
	3	이익조	부평기고	홍성미	덕소고
라이트급	1	류준수	태성고	염정화	강화여중고
	2	김영백	리라공고	장부자	충남체고
	3	박상권	서울체고	장은희	영송여고
웰터급	1	김지환	강북고	조선미	수내고
	2	엄태형	동성고	이은경	수내고
	3	박채호	의정부공고	이선주	군자공고
미들급	1	최정인	인천 광성고	김희정	배성여상
	2	임대규	부산 개금고	한미주	경북체고
	3	유돈영	강원체고	김혜미	서울체고
헤비급	1	임채실	여수고	배은주	송곡정고
	2	장지호	송곡고	김정애	군산중여고
	3	박태승	풍생고	박조은	심원고
미들급	1	최승훈	강원체고	전경아	고양중고
	2	이현수	경상공고	이선영	경남체고
	3	강봉수	개금고	이현아	진영정보고
헤비급	1	유현상	인천전자공고	윤정미	인천 계산여고
	2	김민석	경상공고	김순기	충북체고
	3	이승남	개금고	박연정	리라공고
미들급	1	김유한	태성고	정소영	가정고
	2	우현동	동천고	최재희	금정여고
	3				

경기
본선

"5·18 민주화정신 계승,



미들급 준결에서 부산체고 정정윤(왼쪽)과 영송여고 박주경이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다. 정정윤이 5-0으로 3회 RSC승을 거두었다.

제 1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타기 전국 남녀고교 태권도대회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태권도대회가 창설되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최초로 지방에서 창설된 전국규모 대회인 제 1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타기 전국 남·녀고등학교 태권도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5월 17일 11시에 거행된 개회식에서 광주협회 한길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민의 화합의

차원에서 5·18 민주화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회를 창설하게 됐다"고 대회 창설 배경을 설명하고 "이 시합에 참가한 선수들이 민주, 화합, 질서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을 대신한 이승만 상임부회장의 축사, 광주광역시 고재유 시장의 환영사, 광주광역시 김원본 교육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남고부

남고부 74개교 522명, 여고부 50개교 276명 등 모두 124개교에서 798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 이번 대회 결과 인천 부광고와 리라공고가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 최초의 우승기를 가져가는 영예를 안았다.

무명의 인천 부광고는 남고부 웰터급 최성규와 미들급 정현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수훈에 힘입어 태권도 명문팀들을 제치고 최초의 우승기를 가져가는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결승에서 인천 부광고 정현수는 인천체고 안상국을 맞아 지치지 않는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3-2 판정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정현수는 예선 초반부터 다양한 기술발휘와 함께 뛰어난 경기감각을 겸비, 1차 예선서 선인고의 이의산을 맞아 5-0까지 가는 일방적인 공격 끝에 2회 RSC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라 주목을 받았는데 이어 송곡고의 박재현에게 기권승, 리라공고의 김성욱을 4-3 판정승, 금정고의 신철을 2-2 동점

발전시키기 위해 창설된 뜻깊은 대회"

에 우세승으로 차례로 따돌리고 준결에 올라 인천전자공고의 유현수를 3-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뛰어난 체력에 빠른 발차기를 주특기로 금메달을 따낸 정현수는 이번 대회 남자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웰터급 결승에서 부광고 최성호는 187cm에 달하는 큰 신장을 이용해 뒷차기와 상단기술을 주특기로 결승에 올라 경남체고의 조문제를 맞아 2-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라이트급 결승전은 박진감 넘친 열띤 경기의 연속이었다.

일동중고의 손준길과 동성고 임태영의 명승부가 펼쳐졌다. 손준길은 오른발 돌려차기를 주특기로 한 뛰어난 공격을 퍼부었고 임태영은 뛰어난 경기감각으로 기회포착을 하며 득점을 올리는 접전 끝에 4-4 동점을 이루는 우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수상자와 팀을 우승으로 이끈 지도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유수철 리라공고 감독과 윤성희, 인천 부광고 정현수와 김형선 감독.

가는 치열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간발의 차이로 단체 순위가 결정되었는데 리라공고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첫 대회 우승기를 가져가는 영광을 안았다.

첫 대회 우승기 주인은 인천 부광고(남), 리라공고(여) 정현수 · 윤성희 최우수선수상 수상, 행운의 열쇠(순금 10돈)받아

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었다.

박빙의 차이로 손준길에게 우세승이 돌아가 승자와 패자를 갈랐지만 관중들은 두 선수의 선전에 많은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남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인천 부광고는 96년에 창단된 신생팀으로 태권도계에서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팀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 명문팀을 누르고 두체급을 석권함으로써 신흥 강팀으로 떠올랐다.

여고부

여고부는 8개 체급을 8개의 학교에서 모두 나누어

이어 송곡여고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준우승, 부산체고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로 3위를 차지했다.

리라공고는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패더급 윤성희가 여유있게 상대선수들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은지가 편급 준우승, 박연정이 해비급 2위, 정혜경이 미들급 3위를 차지한데 힘입어 우승기를 가져갔다.

윤성희는 패더급 1차 예선부터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신강고의 안은주를 1회 RSC승으로 누르고 2차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차전에서는 문성여상의 박혜숙을 뒤돌려차기로 공략해 1-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3차전에서도 부

산체고의 장보성을 1-0으로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 준결에서 경남체고 황학순을 맞아 오른발 돌려차기 등을 강타하며 5-3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강화여중고 엄정화와 득점을 주고 받으며 접전을 펼친 끝에 2-1로 체급정상에 올랐다.

윤성희는 지난해 용인대총장기, 중고연맹회장기, 문화관광부장관기, 연세대총장기, 전국체전, 우수선수선발대회를 모두 휩쓸며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윤성희는 올해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2차)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누르고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최종선발전에서 전 국가대표들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나 윤성희는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중고연맹대회에서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보다 향상된 기량과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우승을 차지해 내년도 국가대표 입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여고부 경기에서는 핀급 우승을 차지한 최미현과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한 장은영 등 여고 1학년 신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핀급의 최미현(안산여자정보산업고)은 뛰어난 순발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차며 매회전 높은 득점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예선서 일동중고 최은화에 3-0, 심원고 고미영에 2-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둔데 이어 8강에서는 전북체고 김은영을 6-0으로 RSC승을 거두는 기염

을 토했다.

결승에 올라 리라공고 3학년인 이은지에게 원발 나래차기를 공격, 1-0으로 승리를 거두며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라이트급의 장인영(구남여자경영정보고)은 다양한 공격을 구사하며 1차전부터 영송여고의 김가희를 몰아붙이며 5-0으로 득점을 올리자 3회 RSC 승이 선언되었다.

체력이 좋은 데다 빠른 발차기를 주특기로 한 장인영은 결승에 올라 송곡여고의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3학년의 김우희를 맞아 빠른 스텝을 이용해 원발 몸통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 공격으로 3-1로 승리를 거두며 신인 강자의 출현을 예고했다.

한편 송곡여고 김경희는 플라이급 결승에서 금정여고 박영희를 맞아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두 선수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가운데 김경희가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결승은 충남체고 장주현이 우수한 체력과 체격을 바탕으로 고창여고의 한해진을 맞아 득점을 주고 받은 끝에 3-2로 승리를 거두었다.

시상식에서는 첫 대회의 남녀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로 인천 부광고의 정현수와 리라공고 윤성희가 선정돼 트로피와 상장을 비롯해 부상으로 순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한편 종합우승을 차지한 인천 부광고의 김형선 감독과 리라공고 유수철 감독은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지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종합성적표

남 고 부						여 고 부					
순위	팀(학교명)	금	은	동	비고	팀(학교명)	금	은	동	비고	
우승	부광고	2				리라공고	1	2	1		
준우승	일동중고	1	2			송곡여고	1	1	1		
3위	부평기고	1	1	1		부산체고	1		1	1(8강)	
감투상	서울체고	1			2(8강)	충북체고	1		1		
장려상	청주 신흥고			3		안산여정산고	1				
최우수선수상	정현수(부광고)					윤성희(리라공고)					
지도상	김형선(부광고)					유수철(리라공고)					

입상자 명단

남 고 부				여 고 부	
체급	등위	이 름	소 속	이 름	소 속
핀급	1	박성철	전북체고	최미현	안산 여정산고
	2	함성천	부평기고	이은지	리라공고
	3	이원상	성동고	김영림	배성여상고
		김동석	개금고	김이슬	경성여실고
플라이급	1	정근호	부평기고	김경희	송곡여고
	2	서동진	고양중고	박영희	금정여고
	3	김영봉	인천전자공고	장은애	일산공고
		김용재	경남체고	이인혜	경성여실고
밴텀급	1	문화선	강화고	장주현	충남체고
	2	박래학	일동중고	한해진	고창여고
	3	서혜진	경남체고	주은주	심원고
		최길환	신흥고	최선희	강화여고
페더급	1	정봉영	남녕고	윤성희	리라공고
	2	이제현	일동중고	엄정화	강화여중고
	3	최고봉	문성고	전윤미	군산 중앙여고
		오명우	신흥고	황학순	경남체고
라이트급	1	손준길	일동중고	장인영	구남여경정고
	2	엄태형	동성고	김우희	송곡여고
	3	박천호	신흥고	이은혜	목포상고
		김도영	부평기고	김진희	부산체고
웰터급	1	최성호	부광고	배은주	송곡 정산고
	2	조문제	경남체고	이동주	경성 여실고
	3	김상윤	금정고	홍자연	인천 계산여고
		윤덕근	문성고	황경화	충북체고
미들급	1	정현수	인천 부광고	장정윤	부산체고
	2	안상국	인천체고	송현성	국제고
	3	유현상	인천전자공고	박주경	영송여고
		김진영	풍생고	정혜경	리라공고
헤비급	1	윤원중	서울체고	김순기	충북체고
	2	유승현	분당고	박연정	리라공고
	3	박용수	인천체고	한다운	인천 계산여고
		이원영	대전체고	윤현숙	송곡여고

미래의 새싹을 틔우는 섬세한 손길



98년 연무시범을 성공리에 마친 태권도부원들의 얼굴이 매우 밝다.



나뭇가지마다 파랗게 움튼 새순이 제법 이파리 모양을 잡아가는 5월의 신록들 사이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대학생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곁고 바르게 이끌겠다는 순수한 일념으로 서울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태를 반영하듯 교내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았다.

이 날 취재가 약속된 서울 교대 태권도 동아리도 33명의 재학생 부원중 여성 부원이 1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여성 부원 확보 내지는 유지를 큰 자랑으로 여기는 다른 학교 태권도 동아리의 상황에 비하면 대단한 여대남소의 성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십개의 대학 태권도 동아리 중에서도 서울 교대 태권도 동아리가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운영으로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 학생회관 3층에 자리한 동아리 방을 찾아가 '인정받는' 동아리의 면면을 들여다 봤다.

남녀의 적정 비율속에 32기를 맞는 교대 태권인들

다과와 음료를 준비해 놓고 필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일 맨들이었다.

96년엔가 태권도지에서 인터뷰하러 온 적이 있다며 환하게 웃던 96학번 유경숙을 비롯해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입심 좋은 93학번 문성환, 조용한 중에도 간간이 먹으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96학번 송성환, 부지런히 과자를 먹으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던 99학번 박준현 등이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한 부원들이고, 이어서 건강은 젊어서 지키지는 99학번 심재준, '좋아버립니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듯한 99학번 문상현, 친구따라 강남이 아닌 태권도부에 온 99학번 김광빈, 이것 저것 잘 챙겨주는 98학번 이가현과 씩씩한 전선주, 항공대학교 태권도부 16기 출신으로 98년에 다시 교대에 입학한 정재현 등이 이리 저리 바빠 오가며 웃음을 던졌다. 커다란 책상을 중심으로 사방에 긴 의자가 놓여있



▲올해초 신입생환영회를 갖던 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여지부원들의 얼굴이 많이 보인다.

비율이 적정선이다.

원래 다른 학교의 행사에 참가할 계획으로 인터뷰 시간을 이르게 잡아서 수업중인 다른 부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더니 안타까워하던 회장은 32년의 역사

'태권' 하는 거수경례로 소속감과 자부심 심어 130여명 졸업생 선배들 물심양면 후원

어 언뜻 회의실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동아리 방에는 잘 정돈된 도복 걸이와 화이트 보드, 부원들의 출석표 등이 걸려 있었고 TV, VTR 등 잘 나가는(?) 동아리의 필수(?)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여학생들이 많아서인지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동아리방을 보며 작지만 뚜렷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눈에 금방 띄지는 않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감싸안은 섬세한 손길. 96년도에는 부장이 여성이었고 25기 때는 임원 모두가 여성 부원이어서 5공주'가 득세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환경은 92년 이후로 남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학교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 요즘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7대 3정도로 하고 한다. 그나마 태권도 동아리는 남성과 여성

와 전통을 가진 교대 태권도 동아리에 대해 긴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 자부심

서울 교대 태권도 동아리 역사의 산증인인 이양우 씨(1기·현재 52세)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서울 교대 태권도 동아리는 원래 RNTC(ROTC의 전신) 수업중에 포함되었던 태권도 교과목과 관련이 있다.

그때만 해도 한 기수에 백여명씩 되는 신입생들이 들어와 태권도 수련을 함께 했더니 그 수련 규모만 해도 엄청났을 것 같다. 동아리라기 보다는 교련 수업쯤 됐을까?



▲96년도 대동제 때 남학생들을 제치고 92학번 김묘선이 격파실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던 것이 68년 이후로 동아리 개념을 도입하면서 부원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는 태권도 동아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행당동에 있던 캠퍼스가 74년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동아리 방을 갖게 됐는데 25년된 동아리 방이 이리도 깨끗할 수 있다나... 역시 동아리 방은 주인 하기 나름 인 듯.

부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태권!'을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이는데, 이것도 군사 훈련과 무관하지 않았던 태권도 수련 때문에 생겨난 동아리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다. 처음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생들 중에는 '여기가 군대냐'면서 반발하는 부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체화를 통해 오히려 거수 경례가 학교 내에서 동아리 부원들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태권도 동아리만의 특성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군대에서의 '충성!'은 복종을 뜻하지만 태권도 동아리에서의 '태권!'은 선배와 후배간의 연결고리, 부원들의 소속감의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좀 특이하기도 한 이 인사법이 교대 태권

도 동아리만의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 말고 누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의 표정에선 이런 자부심이 묻어 난다.

졸업생 모임 심무회(心武會)

IMF의 가파른 파고를 넘고 있는 요즘은 교사로서 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들 동문 중에도 부침이 많았다고 한다.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일산에서 가구업을 하고 있는 1기 이양우 씨는 재학생들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 노릇을 수십년간 해오면서 지난해가 참 힘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교원 사회의 동요를 반영한 듯 교단을 떠나는 선배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후배 사랑의 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 이양우 씨를 비롯한 130여명의 졸업생들은 교원 사회라는 단단한 결속의 끈으로 묶여 졸업 후에도 활발한 동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97년에는 12기 선배인 김성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담양 수련원에서 재학생과 동문 선배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이' 즐거운 '심무회 가족 캠프'를 열었다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아리 일에 열심이고



▲원발 돌려차기 격파로 꽃가루를 날리던 96년 가을 연주시범 때의 모습. 보조자는 95학번 박수경, 격파는 93학번 이강익.

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교대 태권도 동아리는 잘 될 수 밖에 없는 동아리인 것.

요즘 동아리 이렇게 돌아간다

다른 동아리들과 비슷한 연례행사 외에도 92년부터 6월에 30개교가 참가하는 어린이 품새 경연대회를 학교 이름으로 개최하고, 11월경 이대, 서울대, 항공대와 함께 4개 대학교 친선대회를 연다.

특기할 만한 것 하나. 1주일에 5회이던 훈련 횟수가 3회로 줄면서 훈련의 강도가 높아졌다. 보다 많은 부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소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시도는 잘 들어맞았다고 한다.

부원들끼리의 의사소통 방식도 '기강 뺏다'(가끔 헤이해지는 기강을 잡기 위해 동원하는 물리력)에서 '태권장'(동아리 일기장)이나 학교 홈 페이지 대화방으로 옮겨가는 추세.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담기 위한 작은 회지도 꾸준히 만들고 있다. 모든 방법에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변화가는 세대와 맞춰 가며 현명하게 운용하려고 노력한다.

전통 무예인 태권도 정신이 X세대도 아닌 C세대(케미컬 제너레이션), N세대(네오 제너레이션)와 만나 어떠한 정반합의 모양새를 꾸려가는지는 모든 대학 태권도인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운동장 4km를 뛰는 강행군, 팔굽혀 펴기 100회 등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나는' 훈련이 이어지지만 올 초 들어온 신입 부원 10명이 고스란히 남았다. 학교에서 가장 운동 동아리다운 동아리로 소문이 난 것도 이들의 태권도와 인간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 때문이 아닐까?

<정순영 프리라이터>



▲96년 가을 대동제 때 고난도 격파를 보이고 있는 태권도 부원들. 96학번 박영배가 격파를 성공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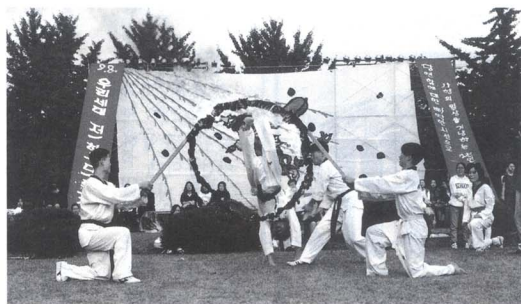
적극적이던 노총각 선배들이 얼마전 우르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가정 지향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 자주 학교에 와서 운동도 함께 하면서 이것 저것 자상하게 지도해주던 선배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부인을 자상하게 돌보느라 시간이 없는 것 같다며 섭섭함과 장난기가 섞인 아쉬움을 표현했다. '결혼한 20기, 21기 선배님들! 우리도 사랑해주셔요!!'

생활의 현장에서 느끼는 일체감

영어 교육, 과학 교육, 국어 교육, 체육 교육 등 세부 전공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초등 교육을 전공한다. 졸업 후엔 모두들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렇게 직업의 특성이 뚜렷하다 보니 사회에서 모이는 것도 그만큼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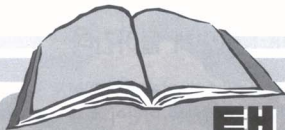
근접한 지역에 발령이 나면 그곳에서 또 동문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직장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학'이라는 특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동문과 재학생간의 '가족 캠프'가 가능해진다. 재학생 수련회에 졸업 선배들이 참가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

동아리가 잘 되는 기본 요인중에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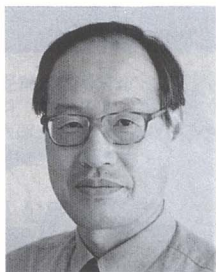
▲98년 가을 대동제 때 볼타는 링을 고난도 기술로 넘고 있는 97학번 신승민.

역사 향기가 깃든



<연재 제 15회>

태권도 백과



이 경 명

(충청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학문의 요람, 아카데미 태권도학과의 모든 것 下

최초로 태권도학과 개설은 1982년 용인대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돼 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7번째로 태권도학과 의 개설은 올해 제주 탐라대학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내년에 두서넛 대학에서 태권도 학과 가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태권도학과가 개설돼 있는 대학의 분포도를 보면 한국체육대학교(서울), 경원대학교(성남), 경희대학교(수원), 용인대학교(용인), 계명대학

교(대구), 탐라대학교(제주), 전남 과학대학(전남) 등이다.

그러나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대학은 한체대, 경원대, 계명대, 탐라대 및 전남과학대 등이다.

그동안 배출된 태권도 인재만도 수없이 많고 태권도 석, 박사 학위 논문도 7백여 편을 상회하고 있다.

학문의 요람, 아카데미 태권도학과의 모든 것을 살펴보자. (무순, 2회 연재)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는 1997년 개설된 유일한 야간부이다.

“우리 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호신, 호국의 전통 무예로서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태권도 경기가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중추적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태권도학과는 위와 같은 질적, 양적 발전에 견줄 만한 태권도 전반에 걸친 학문적 지식 체계를 확립하고 독창적인 경기기술과 지도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태권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 교육 목표이다.

특히 진로, 취업을 위한 학과 지도 방향으로써 태권도 지도자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육성시키기 위한 태권도 전공과목과 체육전공과목 그리고 현대적 교양과 민족사 교육을 중심으로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한체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받고 있다.

병행, 실시하고 있다.

태권도학과와 특색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태권도의 정통성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내용과 심화과정은 힘과 기의 연마와 고도의 정신수련을 통하여 대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참다운 무도인의 자질을 함양케 한다.

둘째로, 태권도의 교육을 통하여 태권도인이 갖추어야 할 무사도 정신을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셋째로, 태권도의 실전적 교육을 토대로 태권도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넷째로, 체육학 전공 학문은 태권도의 전문성에 기여하면서 태권도의 학문화에 매개체가 되도록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체육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을 고취시킨다.

다섯째로, 교양과목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망을 갖춘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의 전통사상과 전통예술을 습득하여 태권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시킨다.

교육과정 교양과목 중 특이한 교과목을 보면 음악의 이해, 자연과학개론, 서도, 사회조사방법론, 비서

학 등은 타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과목이다.

현재 최고학부는 3학년, 모집정원은 40명, 학과생은 모두 120여명이다.

교수진은 태권도학과장에 안용규 교수(체육철학 전공), 지도 교수로 정락희 교수(해부학 전공)가 있다. 한편 체육학과 교수인 이승국 교수(현재 교무처장)와 문원재 교수는 태권도학과 및 체육학과와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전문실기를 담당하고 있다.

(연락처 : 학과실 02 - 410 - 6895)

계명대학교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체육대학 소속으로 1996년 개설, 주·야간반으로 편성돼 있다.

먼저 이 대학교 체육학부의 교육목표를 보면 “지·덕·체를 겸비한 이상적인 인간형성을 교육





▲계명대 태권도학회가 지난해 11월 4일 개최한 제 3회 열린 계명 태권도제의 한 모습.

의 지표로 삼고, 체육학 및 무용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과 학교 및 사회체육을 통한 운동 및 무용경험을 쌓아 미래의 체육과 무용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체육학 전공, 무용학 전공, 사회체육학 전공, 태권도

정신의 근원적 사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고 태권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꾸준히 견지·발전시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태권도를 올바르게 보급시켜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졸업 후 진로는 사회체육지도자, 태권도 체육관 사범, 해외사범, 태권도보도, 각 시도 태권도 관련단체, 경호원, 코치, 트레이너, 대학원 진학 등이다.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사회(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태권도 사범 자격증,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증, 태권도 심판 자격증, 운동처방 자격증,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기타 체육관련 자격증 등이 있다.

이 대학의 자랑거리는 1991년도 2월에 준공을 본 체육관 및 부대시설이다. 태권도학과 전용 수련장(120평), 헬스장(140평) 등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태권도학과생의 활동은 연례 행사로 제 4회 열린계명태권제를 개최했고 주 3회 태권도 합동수련, 매 1학기말 전 학년이 참가, 품새 및 겨루기 대회를 펴고 있다.

그리고 매 학기말 태권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태권도 이론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 높여 주고 있다.

한체대 · 문무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 목표 계명대 · 태권도 시범단 해외원정으로 국위선양

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태권도학과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무도인 동시에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체육학에 관한 과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건강증진, 운동기능 향상 및 호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올바른 태권도실기 및 지도방법을 익히며 태권도사, 태권도개론, 비교무술 등의 지식을 토대로 태권도의 유래와 발생, 태권도

1996년에 창단된 태권도 시범단은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펴며, 해외 원정도 수 차례를 통해 국위 선양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졸업 최저 이수 학점제는 140학점이다. 그 중 교양 32학점, 학부기초 15학점, 전공이수 최저학점(제 1전공 36학점, 학부 내 타 전공 57학점, 타 학부 전공 포함 60학점)을 정해 두고 있다.

현재 주야간 모두 197명이 재학하고 있고 신입생 모집인원은 80명(주간 50명, 야간 30명)이다.

교수진은 학과장(학생처장 겸임) 배영상 교수(운동역학 전공)를 비롯, 이선장 교수(운동생리학 전공), 송형석 교수(체육철학 전공), 이규형 겸임교수 등이다.

해의 유학파로 배영상 교수와 송형석 교수가 있으며 이규형 겸임교수는 한국태권도 시범문화의 으뜸가는 지도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계명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연락처 : 학과실 053 - 580 - 5512)

경희대학교

“새 천년 시민사회 주역 육성에 온힘”과 “21세기 시민 사회의 중심에 경희대가 있을 것”을 표방하고 있다.

1949년 5월 18일 ‘신홍초급대학’을 모태로 출발한 경희대는 반세기만에 3개 캠퍼스와 양한방, 치과병원을 포함한 경희 의료원까지 갖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경희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캠퍼스를 달리며 체력을 다지고있다.

이 대학 태권도학과는 용인대에 이어 두번째로 1983년 주간부로 시작, 1998년 야간부가 신설(모집정원 60명), 주·야간부를 두고 있다.

경희대 태권도학과와 자부심은 대단하다.

국기 태권도를 학문적으로 확립시키고자 종합대학으로서 세계 최초로 태권도학과를 신설하였다는 데 있다.

태권도의 실기와 이론을 체계 있게 교육하고, 과학적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며 학문적 체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화된 태권도를 세계 속에 토착시키며, 또한 유능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 태권도의 저변확대는 물론 세계 속에 경희 정신을 심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태권도학과 설립취지는 훌륭한 학습 장소와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대학을 졸업할 시에는 4단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사범을 양성하고,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진정한 무도인을 배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함에 있



▲경희대는 올해로 11회째 총장기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개회식 모습.

다.

태권도학과 졸업자격 요건제도 시행규칙을 보면 “태권도가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요원이나 지도자들이 요구된 시점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졸업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

것으로 본다.

졸업자격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해두고 첫째, 영어 TOEFL과 TOEIC 기준점수제, 둘째, 영어회화에서 미국인 강사에 의한 듣기와 말하기, 셋째, 컴퓨터 기능, 넷째, 전공실기로 품새, 발차기, 격파 및 졸업실기 발표회 등이다.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으로서 교원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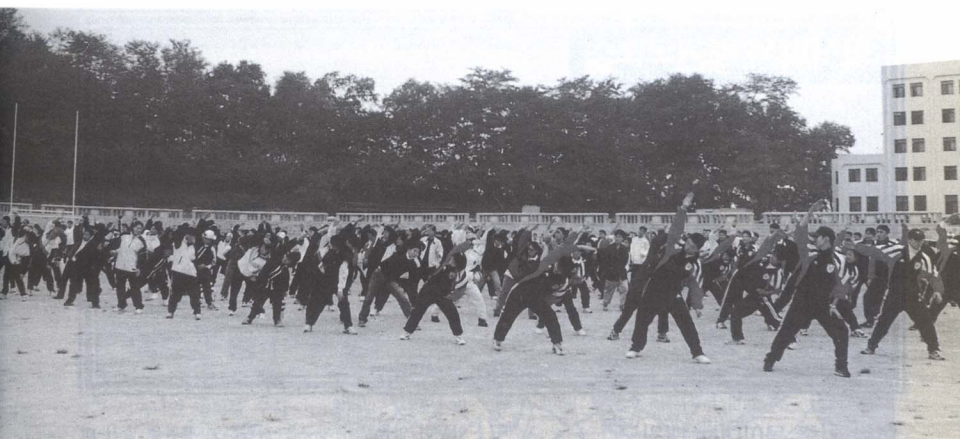
경희대 - 종합대학 세계 최초 태권도학과 신설 진정한 무도인, 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목표

시킴으로써 취업의 폭을 넓히고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졸업자격요건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현행 졸업시험제도와 함께 태권도학과 내규로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전까지 졸업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졸업시험에서 합격한

졸업과 동시에 4단 자격증, 사범 자격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3급 심판자격증,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이다.

태권도학과의 학술연구 동아리 '선배'가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지를 7회째 발간해 왔다. '선배'동아리는 민족 고유의 기상과 정기를 간직하면서 태권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함께 체육대회와 학술발표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경희대에서 열린 제 1회 경원대·경희대·용인대·한체대 태권도학과 친선교류전 때의 모습.

도와 그와 연관된 학술적 부문에 대한 지식 갈구의 충동에서 출발했다.

택견 동아리 '예인'은 새내기를 위한 동아리로서 98학번들에 의해 구성. '예인'은 택견을 통하여 우리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택견을 수련하며 학우들간에 우정을 돈독히 함이 목적이다.

그리고 태권도 과학 연구팀 동아리 활동이 이채롭다. 이 동아리는 운동부족 해소와 각종 성인병에 응용할 수 있는 운동처방에 대해 알은 지식이나마 토론의 장을 갖고 운동처방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뜻있는 학우들이 모여 활동하는 소수 인원의 동아리이다.

한편 경희대에는 십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시범단이 있다.

국내 주요 활동 내역을 소개하면, 서울랜드 축제 시범, 숙명여대 축제 시범, 은광여고 외국인 초청 시범, 경인여전 축제 시범 등을 포함 태권도보급과 모교 선양을 위해 시범활동을 펴고 있다. 시범단과 함께 해야만 알찬 대학생활이 보장되는 이유로서, 선후배와의 잦은 만남, MT, 스타의식 합창, 지방 시범으로 인한 시야의 확대, '나도 국가대표' 등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태권도대회는 올해로 제 11회 짝이며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수원 실내체육관 전국의 남녀 고교선수 9백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태권도학과 전공 모집정원은 주간 40명, 야간 60명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과생은 주간 120여 명, 야간 90여 명이다.

그간 태권도학과와 졸업생수는 5백여 명에 이르고, 교수, 국가정보원, 체육관 경영, 스포츠센터, 해외사범, 각 기업체, 장교, 교사 등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교수진은 주임교수에 방영진 교수(맛사지 전공)를 비롯, 김경지 교수(사회체육 전공), 최영렬 교수(트레이닝방법론 전공), 전익기 교수(스포츠경영 전공), 전정우 겸임교수, 안종웅 겸임교수 등이다.

김경지 교수는 태권도학과 개설과 함께 한 최고참 원로 교수로 현재 체육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한편 최영렬 교수는 '태권도 겨루기론'과 '태권도 시범론'을 저술했다.

지난해에 '태권도 겨루기 지도 및 방법론'을 김경지 교수 외 4인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해외 유학파로는 전익기 교수가 유일하며, 방영진 교수를 제외, 모두 이 대학 출신, 동문이다.

특히 안교수는 현재 경기도 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실무 행정가이다.

(연락처 : 학과실 0331-201-2718)

〈다음호에 계속〉



태권도소설

<연재 제 29회>

호로아 글 · 그림

민씨 일족 몰아내는 대원군

성(城=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이 쌓은 큰 담이나 구조물)으로 둘러싸인 고을 시장은 거의 예외 없이 성문(城門=성의 출입구에 만든 문) 근처에 서게 마련이다.

성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다.

한성(漢城=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 크고 유명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이다.

또한 큰 시장은 여러 가지 소문이나 정보가 서로 오고가는 곳이기도 하다. 장사치들이 각 지방의 소식을 상품과 함께 전해오기 때문이고 시장판의 서민들이 저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한마디씩 하기 때문이다.

남문안장, 혹은 신창(新倉) 안이라고 불리웠던 남대문 시장에서는 오늘도 활기 넘친 상거래(商去來=상품을 사고 파는 일)가 이루어지면서 화제는 온통 그 동안 세도를 부렸던 민씨 일족의 몰락에 몰려 있었다.

『어이구 시원해라! 어이구 시원해!』

『그러게 말이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역시 대원이 대감(홍선대원군을 가리키는 말)이 일 하라는 시원하게 처리하시는구먼.』

일본의 외무대신 무쓰의 회고록에 새로 들어선 조선정부의 움직임은 「대원군이 내정개혁(內政改革=국내정치를 올바르게 고쳐나감)을 빙자해서 첫번째로 왕비의 친척인 민씨 일족에 대해 오랫동안 바라왔던 복수를 치르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쓰여

있듯이 일본군이 왕궁을 점령하고 정권을 맡긴 대원군은 민씨 일족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갑신정변 때 민씨 일족의 대표자였던 민영준을 비롯 민응식, 민치현 등 많은 사람들이 「학민부국」(虐民負國=백성을 학대하고 나라를 그르침)의 죄명으로 벽지에 귀양살이 보내졌다.

민응식은 임오군란 때 민비의 도망을 도와 장호원의 자기 집에 숨겨주었던 인물이다. 민씨 일족뿐만 아니라 민씨에게 아첨하여 요직을 차지해왔던 많은 벼슬아치들도 그 자리를 쫓겨났다.

왕세자의 효심과 일본측의 압력으로 민비추방책은 실패하고...

거주 처벌을 면한 민씨 계열의 사람들도 지방으로 산산이 흩어져 도망가는 바람에 정부안에서 민씨 네 색깔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원군은 민씨 일족이 요직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매우 흡족히 여겼다.

그러나 대원군의 복수가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려면 민비가 권좌(權座=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언젠가는 다시 반격에 나설지도 모를 만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민비로부터 왕비의 자리를 빼앗아 서인(庶人=벼슬이 없는 서민)의 신분으로 떨어뜨려야만 대원군은 안심이 됐다.

민씨 일족이 모두 쫓겨나
고립무원(孤立無援=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
의 몸이 된 민비는 아무런
대외적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민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으려
는 대원군의 속셈을 알아차
린 왕과 왕세자는 깊은 시름
에 잠겼으나 고종은 직접 대
원군에게 뜻을 돌리도록 요
청하기가 어려웠다.

왕을 대신해서 20세의 왕세
자가 어머니인 민비를 구하
기 위해 할아버지인 대원군
을 만나 눈물로 호소했다.
왕세자의 효심은 둘레 사람
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민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몰
러나게 하려는 대원군의 속
셈은 아들이나 손자의 반대
뿐만 아니라 대원군을 내세
운 일본측의 지지도 당시에
는 받지 못했다.

일본측은 청일전쟁을 치르
는 가운데 조선의 궁정 안에
서 파란이 일어나는 것을 꺼
려해 대원군의 민비추방획
책을 견제했다.

끝내 대원군은 민비 추방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이 단념은 그 뒤에도 대
원군의 가슴에 앙금으로 남게 된다.

전봉준만이 김학진과 손잡다

『전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무래도 국태공
(國太公=대원군을 가리키는 말)께서 다시 권좌에
복귀는 하셨으나 왜놈들 탓에 뜻대로 나라 일을 처
결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동학란은 수습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전라감사 김
학진이 근심스럽다는 말투로 전봉준에게 묻는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민씨 일족을 몰아내긴 했
어도 정작 실정(失政=정치를 잘못함)의 원흉인 민
비를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일

대원군은 민씨 일족과
그들의 수족들을 모두
벼슬에서 몰아냈다



본의 압력 때문일 것이요』

전봉준은 대원군의 정치일선 복귀를 환영하면서
도 그 일이 경복궁을 침범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충칼을 지니고 있는 일본군 앞에서 국태공도 무
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소. 아마도 허수아비 집정
(執政=나라의 정치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끝
나고 말 것이 아니겠소?』

전봉준의 이 말에 김학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도 같은 생각임을 나타냈다.

『일본은 국태공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내팽개칠
것이 분명하오. 차라리 국태공이 죽대 없는 분 같
으시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고 길이

역사속의 태권도소설 두역시니

길이 이용해 먹겠지만 워낙 신념이 강하신 분이랴 오래가지 않아 일본은 국태공을 끌어내릴 것이오』 두 사람은 얼마동안 각각의 생각에 잠기느라 말문을 닫았다.

잠시 뒤 이번에는 전봉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여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그 다음은 동학군 토벌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오』

『그야 그럴테지요』

『동학군 토벌을 빌미 삼아 조선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대를 보내 백성들을 탄압하고 나라를 빼앗으려 할 것이오』

새로운 친일내각이 세워지면서 전라 감사 김학진은 자신이 병조판서(兵曹判書=오늘날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벼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차피 나는 친일내각의 실세(實勢=실제의 세력)도 아닐뿐더러 조선을 침략할 야욕(野慾=야심을 채우려는 욕심)에 불타고 있는 일본에 협조할 생각도 없다〉

김학군은 그대로 전주에 남아 호남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동학군의 전봉준 등과 손을 잡아 지방행정을 바로잡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여겼다.

그래서 김학진은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군 지도자들을 전주성으로 불렀다.

그러나 김학진의 부름에 동학군 지도자들의 대응은 각각 달랐다.

김개남은 김학진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호전적(好戰的=싸우기를 즐기는)인 김개남은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대결을 택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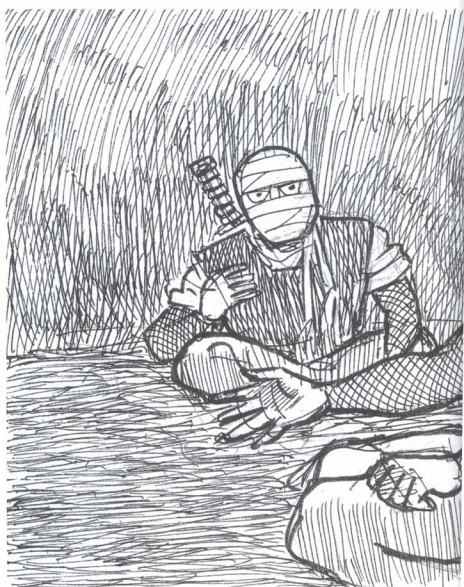
그는 전라 감사 김학진을 만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김개남은 남원 외곽에 있는 교룡산성을 수축(修築=고쳐짓거나 고쳐 쌓음)하는 한편 더위를 피한다는 핑계로 임실 산골짜기의 상여암에 들어가 버렸다.

종게 말해서 성품이 온화한 편인 손화중은 김학진과 손잡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조금 더 돌아가는 꼴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손화중도 일단 부하를 끌고 광주로 돌아갔다.

결국 전봉준만이 두역시니(실제로는 불곰) 등 50명 가량의 부하를 이끌고 전주로 갔다.

〈올바른 정치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만나



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전봉준의 생각이었다.

김학진과 전봉준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뜻이 잘 맞았다.

〈전봉준 같은 인물이면 집강소를 통한 지방행정을 맡겨도 안심할 수가 있겠다〉

김학진은 통이 큰 사람이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전라 감사임에도 그는 과감하게 지방행정의 권한을 전봉준에게 넘겨주어 비록 긴 세월을 가지는 못했으나 백성들에 의한 집강소 행정이 이 땅에서 빛을 보게됐다.

공식화된 집강소 통치를 차츰 틀을 잡아갔고 무뢰잡배(無賴雜輩=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는 불량한 사람들)들의 난동이 수그러지면서 민심을 수습되어 갔다.

두령은 차츰 좋아지고 있네

두역시니로 둔갑하고 있는 불곰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정체를 들키지 않고 군사(軍師) 두역시니



로서 행세하고 있었다.

김학진의 부름을 받고 전주성에 들어온 전봉준을 보좌(補佐=윗사람 곁에서 그 사무를 도움)하고 있는 불곰은 자신의 방에서 그 동안 각 집강소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어? 족제비 형님이 나타나신 모양이구나.〉

불곰이 기척을 느끼자마자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족제비가 들어선다.

『형님, 그대 두령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다짜고짜 불곰은 그 동안 가장 궁금히 여겼던 두역시니의 건

강상태를 물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내용을 알리지 않기 위해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수화(手話)를 통해서였다.

『음,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네. 차츰 회복되어가고 계시네.』

『형님, 그것 참 다행이군요. 빨리 회복되셔야 할텐데...』

『왜 가짜 두령 노릇하느라고 이젠 신물이 나는가?』

족제비가 이 말을 손짓으로 전하자 두 사람은 일제히 웃음보를 터뜨렸다.

『으와하하하!』

웃음만은 소리내어 웃은 뒤 불곰은 이내 수화로 자신의 고충(苦衷=어려운 사정)을 털어놓는다.

『형님, 아녜게 아니라 무척 힘이 듭니다. 전봉준 장군과는 귀엣말로만 뜻을 전해야만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도움말을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하긴 자네야 그런 것 저런 것 제쳐두고 칼이나 주먹을 휘두르려면 신이 나서 잘하겠지만 어디 지

금 상황이 그런가?』

『아무튼 저를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조금만 더 고생하게나 그것보다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더욱 심상치 않으니.』

두역시니의 수석참모 격인 족제비는 무예뿐만 아니라 천문지리(天文地理=천체에 관한 온갖 사항과 지구표면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를 비롯한 여러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족제비는 좋은 시절 중국에 건너가 학문을 익히면서 중국의 소림사권법(少林寺拳法)도 배워 이 땅의 전통무예인 수박(手搏=태권도의 전신)과 아울러 조선과 청국 두 나라의 무예를 고루 갖추고 있어 때로는 두령인 두역시니를 놀라게 만드는 무예를 펼치기도 한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뒤 그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또 한차례의 난리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요. 까짓 되놈과 왜놈의 전쟁이야 어느 쪽이 이기던 그 두 나라 사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네. 어쩌면 이번에는 일본이 이길지 모르지만 일본이 이기면 조선은 통째로 삼키려들 것이니 전봉준 장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

사실 그렇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 목숨까지 걸고 일어난 전봉준이 아니던가. 그 전봉준의 신념과 배짱에 반해서 십중팔구(十中八九=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은 그렇다는 뜻으로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 실패할 것으로 여겨진 동학란에 참가한 두역시니가 나라 망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까닭이 없다.

『형님 말이 맞소. 지금까지 상국으로 받들어왔던 청나라는 그렇다 치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아닌게 아니라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소.』

족제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불곰이 알겠다는 투로 말했다.

드디어 터지고만 청일전쟁

『좌파좌!』

『광! 광! 광!』

7월 25일(양력) 경기만 서부인 덕적군도의 작은 섬 가운데 하나인 풍도 군해에서 청나라 군함 2척과 일본 군함 3척이 마주쳤다.

청나라 군함 제원(齊遠)과 광을(廣乙)은 청나라의 증원군을 태우고 아산만으로 향해오는 수송선 고승(高陞)호와 군함 조강(操江)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일본 군함 요시노(吉野), 나니와(浪速) 등 3척은 청나라 함선만 만나면 싸움을 걸어 전쟁으로 끌어들이 속셈으로 출동했었으니 포문(砲門=대포의 탄알이 나가는 구멍)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이조멸망(李朝滅亡)이라는 책을 쓴 가파노(片野次雄)에 의하면「먼저 청나라의 제원이 발포했다. 제원으로부터 날아온 포탄은 요시노 앞에 떨어져 큰 물결을 일으켰다.」고 되어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요시노의 함포도 불을 뿜었다. 이어 아끼쓰나다, 그리고 나니와도 포문을 열었다. 7월 25일 오전 7시 52분에 풍도 앞바다 해전(海戰=해상에서 치르는 전투)의 막이 올랐다. 청일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일본 군함 3척이 쏘아대는 함포의 위력은 대단했다. 일본 군함의 속사성(速射性)은 청나라 군함에 견주어 8배 가량이나 됐으므로 포격전은 처음부터 일본함대 쪽에 유리했다.

두 나라의 함대는 더욱 거리를 좁혔고 일본함 3척은 집중포격을 가하면서 육박해 들어갔다.

청나라의 제원은 서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광을은 동쪽으로 피하다가 작은 섬 위에 좌초하면서 그 충격으로 화약고에 불이 붙어 자폭(自爆= 스스로 폭발)하고 말았다.

일본 함대가 제원을 뒤쫓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오는 수송선 고승호와 군함 조강이 다가왔다.

그러나 조강은 제원이 보낸 비상신호를 받아 곧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고승호는 그대로 직진해서 풍도 앞바다의 전투해역에 들어갔다.

그 고승호 앞을 가로막은 것이 일본 군함 나니와였다. 그때 나니와의 함장은 뒷날 연합함대사령장이 되어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크게 깨뜨린 도고(東郷平八郎) 대좌(대령)였다.

나니와는 고승호에게 투항하도록 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침시켜 버렸다.

도망가던 조강은 일본 해군에게 포획(捕獲=적의 선박이나 범법한 중립국의 선박을 나포하는 일)했으며 제원만 겨우 도망쳐 버릴 수 있었다.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크게 승리를 거둔지 7일 만인 8월 1일 일본은 서둘러 청나라에 선전포고(宣戰布告=상대국에 대하여 전쟁 개시 의사를 선언하는 일)를 했다.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해전이 일어난 7월 25일 서울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3천 1백 여명의 일본군은 갑자기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산과 공주에 나누어져 머무르고 있던 3천 5백 여명의 청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서였다.

7월 29일 새벽 일본군은 마산 동북쪽 20km 지점인 성환에 진출한 청나라군을 향해 모든 야포를 쏘아대면서 공격해 박살을 냈다.

갑자기 우익(右翼=군대의 진형으로 맨 가운데 중군·中軍을 두고 그 오른쪽에 우익군·右翼軍, 왼쪽에 좌익군·左翼軍을 둔다. 우익은 우익군의 준말이기도 하다.) 쪽으로 포탄이 날아오자 청나라군은 성환 월봉산(月峰山) 본진의 주력부대를 우익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월봉산의 청나라군 본진의 진지는 경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노려 일본군이 월봉산을 향해 공격해 올라가 단숨에 진지를 빼앗아 버리는 바람에 청나라군은 대혼란을 일으켰고 600명이나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

청나라군은 패주(敗走=전쟁에 지고 달아남)하면서 몇 차례로 진형(陣形=전투의 대형)을 정비하고 반격을 시도했다. 안성

쪽으로 달아난 청나라군은 그곳에서 또 한차례 일본군에게 깨졌고 그래도 살아남은 청나라군은 공주로 후퇴한 뒤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과 합류한 뒤 평양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갔다.

육해전(陸海戰) 모두에서 청나라를 이긴 일본의 쿡기는 대단했다.

일본 본국에서는 큰 나라인 청나라를 깨부순 축하

1894년 7월
격침되 청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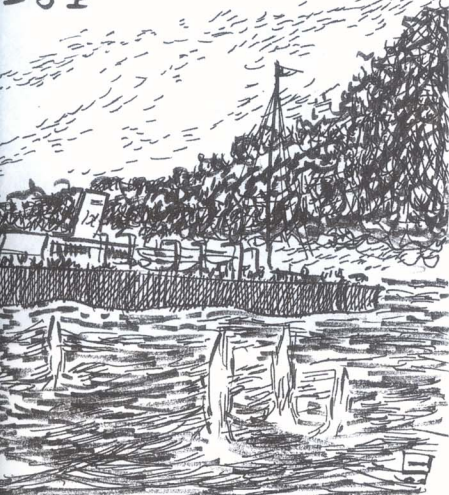
행사가 줄을 이었고, 서울의 일본인 외교관들은 목에 힘을 주고 오만한 자세로 조선 정부에 더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원군이 권모술수를 써보지만...

『우리 대일본 제국은 풍도 앞바다 해전에서 청나라 해군을 크게 깨뜨려 부숴으며 성환과 안성전투에서도 청나라 육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형식은 보고였지만 오오토리 일본공사는 <청나라 쪽은 일본의 적수가 아니다>라는 뜻을 강하게 풍

산만에서 일본해군에 고승호



기면서 대원군의 반응은 살폈다.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 그리고 성환, 안성에서 대승(大勝=큰 승리)을 거두자 오오토리 공사는 스키 무라 서기관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 대원군을 만났다.

오오토리의 보고를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듣고있던 대원군은 <오냐, 네가 일본군의 승리를 앞세워 나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구

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오오토리는 내정개혁의 일환(一環=이어져 있는 많은 고리 가운데의 하나)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라고 강요했다.

『설마 대감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겠지요. 정권을 대감께 넘겨 드리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일본 공사와 의논 끝에 구성한다고 약조(約條=조건을 정하여 약속함) 하셨지요? 지금이 바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청나라를 물리치고 있는 일본과 손을 잡을 조성의 새 내각이 필요합니다』

무력(武力=군사상의 위력)의 뒷받침을 받고 강경하게 나오는 오오토리에게 대원군도 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8월 15일 김홍집(金弘集)을 수반(首班=행정부의 우두머리)으로 삼은 새 내각이 태어났다.

이 새 내각에는 김윤식(金允植), 어윤중(魚允中) 등 일본과 친한 인물들이 기용됐고 당연히 새 정부의 정책은 친일(親日)의 색깔이 짙었다.

아무튼 새 정부의 각료는 오오토리 공사가 지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대원군은 이름만 집정(執政)일 뿐 정책상의 실권(實權=실지의 권한)은 전혀 행사하지 못해 그야말로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이 녀석들이 나를 실속은 없고 허울 좋은 집정(執政)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용만 해먹고 있구나>

대원군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노희(老兪=노련하고 교활함)한 대원군이 일본과 정면으로 대결할 까닭이 없었다.

대원군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이무리 일본이 강하다해도 큰 나라인 청나라에게 종국(終局=마지막 판)에는 지고 말 것이다. 그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것이 대원군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은 대원군뿐만 아니라 국왕인 고종을 비롯, 정부고관 모두의 생각이기도 했다.

대원군이 집정이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시 귀국했던 러시아 공사 웨벨이 서울로 돌아왔다.

대원군은 인사차 찾아온 웨벨에게 『청일전쟁이 오래 끌어서는 극동(極東=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유럽을 기준 삼아 우리 나라,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을 이르는)의 평화는 바랄 수가 없어 청나라와 일본에게 전쟁을 그치도록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소』라고 당부했다.

대원군은 일본의 지나친 간섭에 자신이 무척 화가나 있다고 웨벨에게 이야기했다.

대원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러시아도 일본처럼 조선의 사태에 끼어 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만약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사개입(軍事介入=무력을 앞세우고 끼어드는 일)에 나서면 적어도 일본은 조금이나마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원군은 내다보았다.

또, 대원군은 평양에 와있는 청나라군에게 밀사를 보내 『하루 빨리 일본군을 몰아내 조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일본군의 장군 이름이나 병력, 그리고 움직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대원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본군에 관한 정보는 평양의 청나라군으로부터 바로 이홍장(李鴻章)이나 원세개(袁世凱)에 보내져 청나라 군사 전문가들의 작전계획 수립의 자료가 됐다.

한마디로 대원군은 일본이외의 나라에게 힘을 빌려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를 다 썼다.

국왕은 국왕대로 청나라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밀서(密書=비밀 서신)를 보내 이홍장의 요구에 따라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병력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때쯤에는 민비도 몰래 활동을 시작해 청나라군에게 『우리 나라는 상국(上國)인 청나라를 믿고 필승을 기원한다』는 서장(書狀=편지)을 보내는 한편 북경에는 밀사를 파견해 서태후(西太后)의 환갑 축하로 은 10만 량을 선사했다고 전해진다. 대원군도 국왕도 민비도 제각각 청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이중외교(二重外交)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일본측의 정보망에 걸려 그때마다 즉각 일본 정부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 길이 없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전봉준

〈아! 이런 때에 두역시니가 내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은가.〉

전봉준은 한숨을 내쉬며 창 밖의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갑자대 대원이 던진 독 바른 표창을 맞고 목숨을 잃을 뻔한 두역시니가 다행히 화타 스님의 효험어린 치료 덕분에 나날이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거동이 불편해 당분간은 군사(軍師=사령관)에게 작전이나 계략을 궁리해내는 사람)의 자리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전봉준으로서

안타깝기만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동학군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못된 야심을 품고 조선 땅을 짓밟고 있는 왜놈들을 몰아내야 할텐데……〉

두역시니가 없어지고 보니 그가 동학군의 움직



성환에서 청나라군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일본군.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80여 명이 전사한데 견주어 청나라군은 1000여 명이 전사했다.

에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전봉준은 깨닫게 됐다.

그의 뛰어난 무예, 그리고 동학군 아니 두역시니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지리산패 등의 활약이 전주성 함락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봉준에게 고마웠던 것은 박식(博識=널리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함과 날카로운 예지(叡智=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뛰어난 지혜)로 시국(時局=나라나 사회의 안팎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알맞는 도모(道模)를 주는 두역시니의 지적(知的=지식에 관한)인 능력이었다.

〈동학군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일까? 지금 바로 들고일어나 일본군을 쳐야 되는 것일까?〉

그러자면 그전에 해결해야될 큰 걸림돌이 있는데……>

사실 그랬다.

아직도 동학은 한 덩어리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북접(北接)과 남접(南接)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전봉준이 제 1차 봉기를 일으켰을 때 동학교의 제 2세 교주 최시형은 『종교활동은 어디까지나 사회활동에 그쳐야지 군사행동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고 전봉준을 국가의 역적, 사문(師門=스승의 문하)의 난적(亂賊=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의 무리)라고까지 욕했다.

이 최시형 교주의 신념을 높인 제자인 손병희(孫秉熙=뒷날 31 독립 운동의 주동자 33인 가운데 한사람)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열렬히 지지했다.

이 지지자들이 전봉준들의 접(接=동학의 조직)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으로 북

접이라 불리웠고 전봉준과 행동을 같이한 접들은 남접이라 불리었다.

북접이 군사행동에 나선 남접을 비난하는 것에 맞서 남접은 『북접에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겁이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제 1차 봉기에서 승리를 거둔 전봉준의 지지자들은 무력에 의한 승리에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 자부심은 북접에 대한 강한 대립심과 연결이 돼 있었다.

<그렇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접과 남접이 화해해서 뜻을 같이해야 한다. 이번에 대적할 상대는 허약한 관군이 아니라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병력도 많은 일본군이다. 먼저 북접을 설득해야 한다.>

전봉준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북접이 꾀꾀없이

제 2차 봉기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대의명분(大義名分=사람으로서 응당 지켜야할 도리나 본분)을 논리적으로 세우는데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아! 아찌다! 아찌가 일어났다

와자지껄하게 어울려 노는 어린이들은 때로 옷을 보를 터뜨리고 때로는 언어맞거나 넘어져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는 일을 그칠 줄 몰랐다.

지리산 피아골 근방에 자리잡은 지리산패의 본거지에 옮겨온 꼬마 부대들은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산에는 열매가 많았고 물에서 물고기가 튀어 올라오며 숲에는 다람쥐 등 들짐승이 뛰어다녔다.

죽제비 아저씨는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량조달을 부지런히 해주었으며 추월이 누나는 있는 솜씨를 다해 꼬마들의 음식을 장만해 주었다.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어린이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생활이었다.

밤이 되면 때때로 어린 자갈이 어머니를 그리워 눈물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친누나인 분이가 자갈을 토닥거렸다.

그리고는 날이면 날마다 산과 강에서 노는 것이 일과였다.

그날도 휴먼지를 일으키며 뒹굴고 놀고 있던 어린이 가운데 자갈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아찌다! 아찌! 아찌가 일어났다.』

순간 어린이들은 모두 동작을 멈추고 일제히 자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분명 두역시니 아저씨였다.

아직도 불편한 몸을 나무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두역시니가 나타난 것이다.

『으와와아!』

어린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역시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에게 두역시니는 문둥이가 아니라 그리운 육친(肉親=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제같이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그 동안 잘 있었니?』

많은 어린이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두역시니는 비틀거리면서도 북면 속의 두 눈은 웃고 있었으나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하권의 박사와 심중섭 박사가 쓰는



하 권 의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의학

칼

럼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어린이 골절 후유증

어린이와 “사고사”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질병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 없이 커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나 어린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법, 특히 최근의 공해, 자동차 사고, 유해물질 등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는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암이나 전염병이 아닌 “사고사(事故死)”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른에 비해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주위를 살펴는 침착함이나 반사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기가 훨씬 쉽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 자동차 사고, 화상 등 어린이들을 노리는 불의의 사고는 도처에 널려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어린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이 팔, 다리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로 실려온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어린이들은 팔다리의 골절뿐만 아니라 대개 머리카락 부근의 중요 장기에도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머리카락 부근의 손상을 제대로 신속히 치료하지 않은 경우 큰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치료에서 팔다리보다는 복부나 머리의 손상에 먼저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위급한 순간의 처치를 하는 와중에 팔다리의 골절상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개의 경우에 어린이 팔다리의 골절은 치료가 며칠 연기되거나 며칠동안 붓기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수술을 하거나 석고깁스를 해도 무방하지만, 어떤 때에는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신체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팔다리 골절은 신속히 치료해야

팔다리의 골절이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골절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지저분한 공기나 먼지에 오염된 개방성 골절, 관절 속에서 골절된 분쇄골절, 골절된 뼈가 신경이나 혈관을 눌러서 신경마비나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등이 신속치료를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나 뇌손상의 신속한 치료와 더불어서 골절상도 동시에 치료를 하고 있어서 골절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후유 장애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여러 가지 손상을 정신없이 신속

치료를 하다가 보면 팔다리의 골절을 초기에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골절상 중 어린이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판 손상을 당한 경우 치료가 방치되거나 치료시기가 늦는 경우에 간혹 문제가 발생한다.

성장판 손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팔다리의 성장에 지장을 주어 손상 받은 팔다리가 짧거나 비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어린이의 골절로 인한 팔다리의 변형 중 특히 다리의 변형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 시킨다.

팔은 5cm 정도 짧아도 걸음으로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다리는 2cm만 짧아도 다리를 절게 되고 한쪽 골반이 처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몸의 척추 및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조기 관절염이 발병하게 한다.

따라서 다리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완벽히 치료되어야 한다.



지 계속 치료를 하게 된다.

다리길이나 변형을 치료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변형의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경우 치료방법도 간단하고 합병증 및 치료기간도 적다.

성장판 손상 방치하면 팔다리 변형 일으킬 수도 완벽한 치료 요하기 전에 사고 예방에 주의

변형 치료는 초기에

외래를 찾는 많은 환자들 중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거나 초기 손상이 너무나 심하여 잘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길이가 짧거나 변형이 심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근의 발달된 치료법으로 교정 수술이 가능하지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다리의 성장은 여자 어린이인 경우 대개 만 14세, 남자 어린이인 경우 만 16세까지 계속되는데 만일 어린이가 1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서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성장판 손상을 당한 어린이는 성장판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그러나 치료를 방치하여 성장이 완전히 끝난 나이에 심한 변형이나 단축을 가지고 그제야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변형이 심하고 성장이 완료된 나이에 후유증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교정수술도 어렵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완벽한 교정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나 이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모두 힘을 합하여 잘 치료를 하였더라도 후유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따라서 심각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완벽한 치료를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무도연구소(소장 민경호 박사)의 양해를 얻어 동 연구소가 엮어낸 논문집에서 골라 실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태권도 수련 시설 下

제이슨드라이브 - 디프니

캘리포니아 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원

이 논문은 태권도 훈련장 건축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안내 지침을 다루고 있다. 많은 설계 기준이 여러 무술 훈련장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이 논문은 특별히 태권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권도 훈련장 설계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전제 조건은 이러한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간에서는 태권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권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술이든 가장 복잡하며 극적이거나 역동적인 기술이든 기술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만 주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무도장(武道場)의 건축 기준은 경제적, 학술적, 제도적, 상업적 요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준은 무도장으로 고려 중인 공간이 새로운 건설물인지,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복원한 것인지, 소매 창고의 걸면을 개조한 것인지, 더 큰 새로운 스포츠 시설의 일부분인지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경우를 보면 재정(財政)은 무엇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점을 모두 설명한다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 이상(以上)이 된다. 하지만, 그 대신 태권도 훈련장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안내 지침을 개발하는 근거가 되는 계획안에 관련된 몇 가지 건축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논문에서는 성공적이고 유용하며 귀중한 훈련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조사할 거지만,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열성적인 지도와 조직적인 훈련보다 나올 수는 없다.

더구나 올림픽 경기장 수준의 훈련장도 매우 유용하겠지만, 아주 열성적인 수련자들은 얼마만큼이 주어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충분히 이용한다. 건축은 인간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진선 옮김>

바닥

수련 구역의 바닥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태권도 훈련장을 지을 때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건축 요소와 마찬가지로, 바닥은 설립 조건에 좌우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바닥에 쓰여지는 시공 재료와 건축 소품은 바닥의 내구성과 수명을 위해서 중요하다. 덧붙이자면 태권도는 맨발로 행해지기 때문에, 수련 참가자들은 신발을 신고 하는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들보다 바닥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끊임없이 달리고, 건너 뛰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점프하고, 때로는 일부러 넘어지고, 때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련 구역의 바닥은 안전성에 최대한의 초점을 맞춰 시공되어야 한다. 안전해야만 수련인들이 수련을 계속할 수 있

고, 계속 할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훈련장의 바닥은 커다랗게 하거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은 표면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는지와 어떻게 시공됐는지에 따라서, 소리를 반사하거나 소리를 흡수하는 근원지로도 역할하게 된다.

콘크리트나 나무의 딱딱하고 매끄러운 표면은 실내에서 발동작 소리와 목소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소리를 반사하거나 증폭시킨다.

표면은 매우 촘촘하게 짜여진 재료로 돼있고 보조 패드는 구멍이 있어 소리가 스며들기 좋게 돼있고 카페트가 깔린 바닥인 경우, 실내에서 다른 소리들은 여전히 반향될지라도 발동작 소리를 흡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3cm두께의 촘촘하게 된 기포 고무(기포 고무 - 해면 모양의 고무로, 쿠션이나 매트리스 용)로 무술용 매트가 깔린 바닥은 소리를

더 잘 흡수한다.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바닥에 부분적으로 카페트나 매트 깔면, 전체를 카페트나 매트를 깔 경우보다 소리 흡수가 좋지는 않지만, 맨 바닥 보다는 소리 흡수면에서 훨씬 낫다.

태권도 훈련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바닥을 시공하고 끝마무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대부분의 바닥 시공의 경우에 버팀 구조물은 나무나 콘크리트 철판로 되어 있다.

훈련장 바닥이 지면과 가까운 경우, 두터운 수증기막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바닥이 나무로 된 경우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바닥 표면의 끝마무리는 보호막 없는 콘크리트 슬라브(exposed concrete slab)나, 콘크리트나 나무로 된 애벌 바닥에 카페트를 덮어서 처리하거나, 나무로 된 애벌 바닥 위에 널빤지를 덮어서 처리한다.

이러한 바닥 표면 처리의 경우 중에서 보호막이 없는 콘크리트(exposed concrete)는 제일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로 『미국 태권도 연합의 겨루기 경기 규칙』에 따르면 “국가나 지역, 주, 지방의 모든 미국 태권도 연합은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매우 소수의 훈련장만이 토너먼트 경기에 사용되는 데, 위 조항의 정신은 수련인들에게 콘크리트 바닥



▲태권도는 주로 맨발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수련장의 바닥은 안전에 바탕을 두고 시공되어야 한다.

있으면 그 위험도는 한층 높아진다. 게다가 콘크리트 바닥은 열의 변화에 약하고, 기온이 떨어질 때는 매우 차가워져서 표면에서 오는 느낌조차 편안하지 않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콘크리트는 소리가 매우 잘 반향 되기도 하여, 수련에 적절하지 않는 시끄러운

카페트 깔린 바닥, 충격흡수와 소음방지에 일조 벽에 부착된 거울 보며 자신의 동작 체크도 가능

은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위의 안전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콘크리트 바닥의 딱딱함은 오랜 기간의 수련에 걸쳐 발과 발목과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는데, 이 충격은 누적된다. 이 용서가 안 되는 엉터리 바닥 표면은 낙법을 구사할 때나 사고로 넘어지는 경우에 더 위험하다.

덧붙이자면 표면의 매끄러움은 특히 위험해서, 넘어질 위험도가 높는데, 바닥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전체가 보호막이 없는 콘크리트(exposed concrete)로만 만들어진 바닥은 위에 말한 여러 이유 때문에 허용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보호 패드나 매트가 덮인 콘크리트 바닥은 안전하고 실용적이라는 게 검증되어 있다.

카페트가 깔린 바닥은 태권도 훈련장에서 사용되기에 적당한 몇 가지 질적(質的)인 이유가 있다. 카페트는 내구성이 매우 좋고 닳았을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무겁고 두꺼운 패드가 대어진 카페트는



▲태권도 훈련장의 벽은 음향상태를 향상시키고 열효율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수련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충격 흡수를 잘한다. 충격 흡수는 넘어질 때의 충격과,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관절에 주어지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수련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카페트는 훈련장 내의 소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패드가 대어진 카페트를 설치한 경우도 훈련장의 열효율성(熱效率性)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열효율성이 좋으면 신체가 닿는 지점에서, 이 신체 부위가 단지 발에 지나지 않든지 아니면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할 때 사용되는 전신(全身)이든 간에, 바닥 표면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카페트는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설치한 나무로 된 개별 바닥의 맨 위에 놓여질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스포링으로 된 좌철(座鐵) 위에 마루 명에를 설치하고, 그 마루 명에 맨 위에 나무 널빤지를 깔고, 그 위에 카페트를 까는 경우이다.

스포츠 좌철은 바닥에 뛰어난 탄력성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더 크게 점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점은 농구 코트 시공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카페트가 깔린 바닥은 훈련장이 대단히 유동적으로 활용되게 하여, 다른 활동을 위해서도 손쉽게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농구장처럼 널빤지로 된 바닥 표면은 태권도 훈련장 바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널빤지로 된 바닥은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하기가 쉬운 반면, 교체하기가 어렵고 교체시 비용이 많이 든다.

널빤지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용수철 좌철 위에 설치된 마루 명에 위에 놓여진다면, 바닥은 약간의 탄력성을 갖게 되어, 관절에 부담이 장시간 동안 주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상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태권도는 맨발로 행해지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인들은 농구 경기자나 테니스 경기자가 얻는 신발의 안전성과 신발의 지지력과 신발의 패드라는 이점을 가지지 못한다. 나

무 바닥 아래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 바닥의 딱딱함은 수련인들이 넘어지는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나무 바닥도 소리가 생생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훈련장 내의 소음을 이상적으로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안전성과 음향적 측면 양쪽 모두를 나무 바닥에 매트나 패드를 덧붙여 설치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벽

태권도 훈련장의 벽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건축 요소이다. 바닥과 마찬가지로 벽의 재질과 시공은 태권도 수련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련 참가자들의 안전도 모에도 도움이 된다.

벽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음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태권도 훈련장 벽은 훈련장의 음향 상태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벽 시공은 훈련장 건축을 관리하는 건설 계획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될 수 있다. 단, 어떠한 형태를 띠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몇 가

지 요소들이 존재한다.

태권도 훈련장의 벽은 내부 봉합이든 외부 봉합이든 간에 열효율성이 있어야만 한다. 열효율성은 수련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 벽의 열효율성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훈련장 내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한다.

벽의 마무리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 수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훈련장의 벽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된다. 이 접촉 중 일부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벽은 언어맞는 행위를 견딜 수 있어서, 파손되거나 금이 가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수련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재료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석고 보드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벽 마무리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 내구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천으로 씌운 판넬은 안전하다. 페인트 칠한 베니어판(합판)이나 콘크리트 블럭은 내구성 면에서 만족스럽다. 어떤 종류의 잡그는 기구라도 확실한 안전을 위해 벽의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에 설치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서 설치되어야만 한다. (콘크리트) 블럭이나 덮개 덮인 셋기둥 벽의 외면에 설치된 벽의 하단부 2미터를 패드나 카펫으로 둘러싸면, 필요한 내구성과 안전성 모두를 가질 수 있다. 패드나 카펫을 깔 벽도 실내의 소리 반향을 줄여서 소음 수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작은 훈련장은 벽의 색깔이 밝아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답답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벽의 일부분에 거울을 부착할 수도 있다. 거울은 수련인들이 그들 자신의 기술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거울은 또한 훈련장 이곳저곳에 서있는 수련생이 자신들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수업에도 잘 활용된다.

거울은 실내 공간을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특히 좁은 공간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된다. 거울은 "개방된 형태의 둥근 모서리와 가장자리가 있는 대단히 잘 연마된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거울 부착 방법 역시 인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끝마무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밖에 중요한 사항들

이 논문은 태권도 훈련장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안내 지침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다.

이 글은 간단한 안내에 지나지 않으며, 훈련장 설계에 대한 A-to-Z(모든 것)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대신, 이 논문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다뤄져야만 하는 중요한 여러 문제들에 중점을 두었다. 이 문제들은 프로그램, 동선(動線), 구역 배치, 음향, 훈련장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 기술된 기준들은 확실히 건축적인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사항들로 논점이 기울어져 있다. 논문의 제한된 범위 때문에, 많은 중요한 사



▲태권도 수련장 벽에는 거울을 부착해놓은 곳이 많다. 수련생들이 자신의 기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항들이 제한된 방식으로 언급되거나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

언급되지 못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과 재정(財政), 주관 기관의 성격(대학 클럽인지, 사립 학원인지 아니면 국가 훈련 센터인지), 기계 시스템과 난방과 냉방과 환기, 사소한 여러 사항.

태권도 훈련장의 설계와 건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므로, 활발한 연구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태권도 훈련장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물리적인 현상에 비중을 두기는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는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의욕적인 시도를 위한 출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호에 계속〉



올 바 른 심판의 조건

(제 14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되는 시리즈

동기부여

우리는 신체적 기술들이 심판 보기에 있어서 당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집중력 강화, 상상력 활용하기와 결합된 신체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분명 당

신이 심판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더 강한 동기부여, 욕구, 그리고 실행이 없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할 수가 없다.



▲선수 뒤에서 심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을 주시하고 있다. 심판들은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운동선수들과 닮았다.

대부분의 심판들이 많은 욕구와 동기부여로 출발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력기간 내내 게임 내부에서 높은 수준의 동기 부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메이저 리그의 한 심판이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메이저 리그 심판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한 두번씩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심판들은 전통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적게 받는다. 또 선수들, 코치들, 팬들 혹은 미디어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약점들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일하는 플로어, 필드, 코트에서 매 순간순간 당신의 최선을 다해 일해야만 한다.

또한 당신은 우리가 9장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잠재된 본질거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심판으로서 당신이 받아야만 하는 칭찬의 부족과 증폭되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한 높은 수준

의 동기부여와 강한 자아 의식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 수행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대신 당신은 임무 수행과 발전에 대한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이 의미있는 목표를 위해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이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유지할 기회는 아주 높아지는 것이다. 사실, 목표설정은 당신의 동기부여와 심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목표는 방향에 대한 감각과 미래를 위한 도전의식을 제공한다.

Keith Bell이 그의 책 Champion Ship Thinking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목표설정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골대 없이 슈팅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방아쇠를 당기고 총을 쏘는 것을 즐겨워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새를 잡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표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고 해도 목표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장에서 우리는 목표설정의 원칙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우리는 목표설정 연구의 많은 정보들을 보유했고 최근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구도 많다.

그러나 심판들이 그들의 심판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운동 선수들과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자들과 운동선수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온 목표 설정의 원칙들이 심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다.

우리는 '목표'를 정의하고 왜 목표가 작용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이 장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나서 심판업무에서 쓰일 수 있는 목표설정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 시즌동안 심판업무를 보기 위한 당신의 동기 부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부가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정의

목표는 '행위의 목적 혹은 의도'이다. 간단히 하자면 목표설정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언제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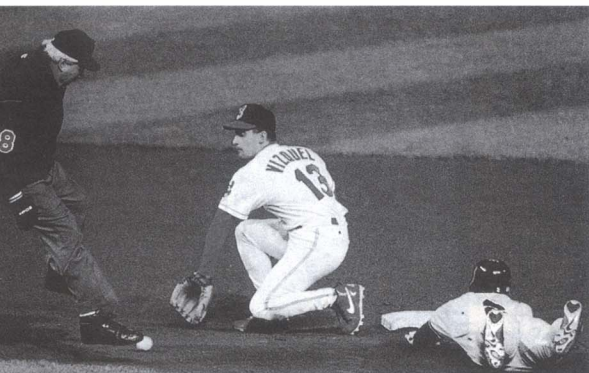
▲ 숨가쁘게 진행되는 농구경기에서 심판도 선수들만큼 바빠 움직여야 한다. 심판은 신체적, 정신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된다.

Edwin Locke는 목표를 보통 특정한 시간적 제한 내에서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의 특정한 수준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의에 관계없이, 목표는 보통 우수함의 표준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왜 작용하는가

비즈니스 교육과 스포츠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 향상과 업무수행을 위해 목표를 활용한 다. 업무 수행을 위한 목표 설정의 이익 효과는 심리적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강력한 발견 중 하나다.

사실 Locke와 그의 동료들이 깨닫도한 110개의 연구 중 99개에서 특수하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쉬운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들, 혹은 '최선을 다하자'는 목표를 가진



▲왜 심판이 되었는가? 심판은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대체 왜 목표라는 것이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그러한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확한 결정에 도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경쟁을 즐기기에 심판 일에 연관되게 된다. 심판 업무란 그들에게 있어 그런 환경과 밀접하게

한 목표들은 왜 당신이 심판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목표들은 심판으로서의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향한 디딤돌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디딤돌(목표)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달성하기에 너무 어려운 극적인 것들이 아니다)이거나 빨리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하라.

신체적, 정신적 항상에 기여

만일 당신이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당신은 보통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때, 당신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 심판이 코트에서 더 쉽게 일어섰다 앉았다 할 수 있고 신호를 보내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아주 열심히었다고 하자.

그 심판의 목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기에 그의 미래의 행동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들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은 다이어트와 운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목표 세울수록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능력 보여 잠재성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동기여부 필요

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자극은 당신의 흥미를 오랜 기간동안 유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목표는 당신이 심판 업무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결정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의하기 위한 몇가지 특별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

또 다른 심판은 그녀의 심판보기 기술과 게임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은 심판 캠프에 많이 참가하고 그녀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접하려 할 것이다. 이런 두가지 예를 통해, 당신은 목표가 심판으로서 당신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동기유발 유지

당신이 어떤 전문성과 행위를 추구하는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잠재성을 일깨우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심판들은 계속해서 찬사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심판들이 주목받을 때라고는 그들이 실수할 때, 군중들에 의해 통제력을 잃을 때, 코치나 선수와 언쟁에 휘말리게 될 때다. 따라서 심판들은 동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한다.

비록 당신이 때때로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을 때처럼) 확실히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목표는 당신이 오랫동안 동기 유발된 상태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다른 이들로부터의 칭송이나 인정을 받는 대신에 개인의 진보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요소들과는 독립된 자기 만족을 경험하게 한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동기 유발의 일관성있고 강력한 요소가 된다.

목표설정 가이드 라인

어떤 특정한 목표의 설정이 당신의 업무 수행을 향상시킬 것이라든지 혹은 모든 목표들이 다 똑같이 효과적일 거라고 제안하는 것은 당신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업무수행과 동기 유발을 극대화하는 목표설정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들은 당신을 아래와 같이 이끌 것이다.

-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 진취적인, 그러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당신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 장단기 목표를 세운다
- 당신의 목표를 문서화한다
-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실히 한다.

목표를 명확히 한다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를 결정하는 첫번째 방법은 심판업무에 대한 당신의 기술들과 태도들에 관해 스스로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태권도경기에서 심판들이 칭송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심판들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심판으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 심판으로서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 심판보기의 어떤 면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가?
- 나는 매 게임마다 정신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있나?
-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 다른 심판들, 선수들, 코치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나?
- 규칙들과 규제를 잘 숙지하고 있나?
- 나의 기술과 태도는 괜찮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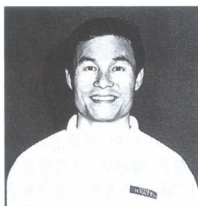
이러한 질문들을 쫓아가면서 당신은 그 답들이 반드시 솔직하게 혹은 간단히 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심판업무를 통해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지도 : 박영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야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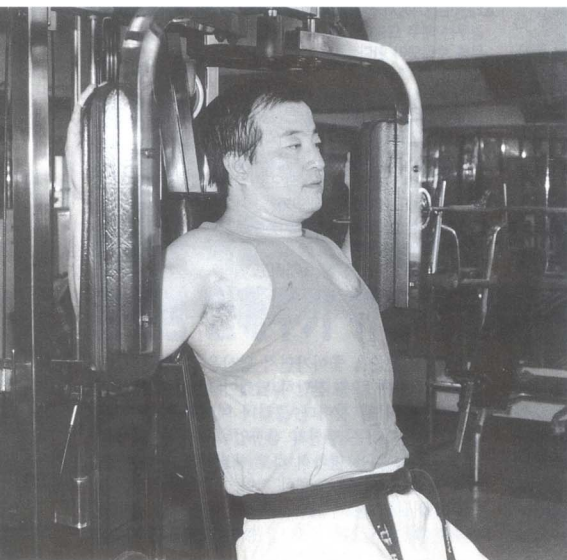
웨이트 트레이닝

빠

른 동작을 위한 민첩성 훈련은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빠른 동작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펙 데크

PECK DECK



◀ 자세 ▶

- 1 펙덱 기구에 등을 곧게 대고 앉는다.
- 2 팔꿈치가 어깨높이와 수평이 되게끔 두 앞 팔을 패드에 대고서 두 손바닥도 패드에 갖다댄다.
- 3 두 다리는 벌려서 두 발의 넓이가 어깨넓이 정도로 하여 발바닥이 바닥에 안정되게 놓는다.

◀ 동작 ▶

- 1 두 앞 팔을 가슴 앞쪽으로 모아서 양쪽의 패드가 서로 맞닿게끔 한다.
- 2 다시 천천히 양쪽 패드가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두 팔을 옆으로 벌린다.

◀ 호흡 ▶

- 1 입으로 내뿔으면서 양쪽의 패드를 가슴 앞쪽으로 모은다.
- 2 숨을 코로 들며 마시며 양쪽의 패드를 몸 옆으로 벌린다.

《 알맞은 무게와 반복횟수 》

동작에 무리가 없이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① 엉덩이 끝이 벤치 구석에 닿게끔 등을 곧게 유지한다.

② 운동 중에는 다른 신체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하며 팔의 힘만으로 동작이 되게 한다.

③ 동작 중에 팔꿈치가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④ 두 팔을 벌리면서 깊게 심호흡을 실시하면 흉곽의 확장으로 보다 대흉근에 자극을 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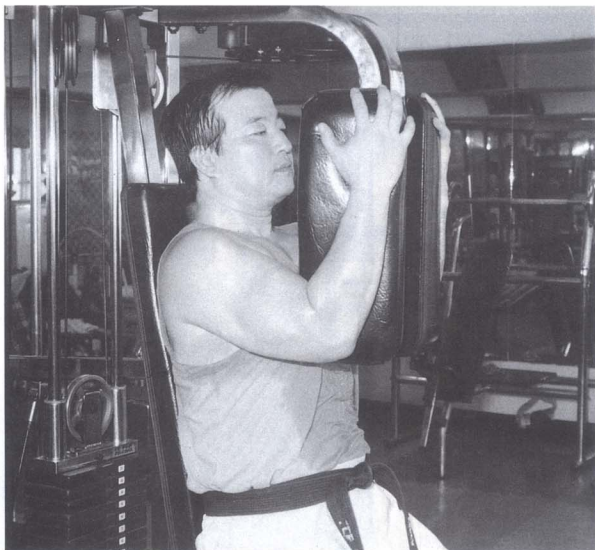
⑤ 보다 강한 자극을 대흉근에 주려면 두 팔의 패드를 모으고서 1초 내지 2초간 멈춤으로써 정적수축(ISO METRIC CONTRACTION)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응용동작 》

① 보다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한쪽 팔만을 사용하며 교대로 바꿔 가면서 실시한다.

②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두 손으로 실시자의 팔꿈치에 대고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실시한다.

③ 운동 도중에 2~3 차례 다른 각도에서 멈춘 다음 대흉근을 긴장시키면 훌륭한 정적, 동적 수축을



줘서 근육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 발달근육근 》

- 대흉근
- 소흉근
- 삼각근(FRONT)
- 전완근

《 발달동작 》

- 어퍼커트나 혹을 치는 동작의 발달
- 물체를 꺼안는 동작의 발달

트레이닝 도움말

에어로빅스(AEROBICS) 운동

빠른 피로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운동 중 산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에어로빅스 운동, 즉 조깅이나 자전거, 수영운동은 심장근육의 발달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지속시켜 빠른 피

로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가지 좋은 예는 마라토너들이 하루에 수십킬로미터의 훈련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에어로빅스 운동 효과에서 얻어진 것이다.

케이블 플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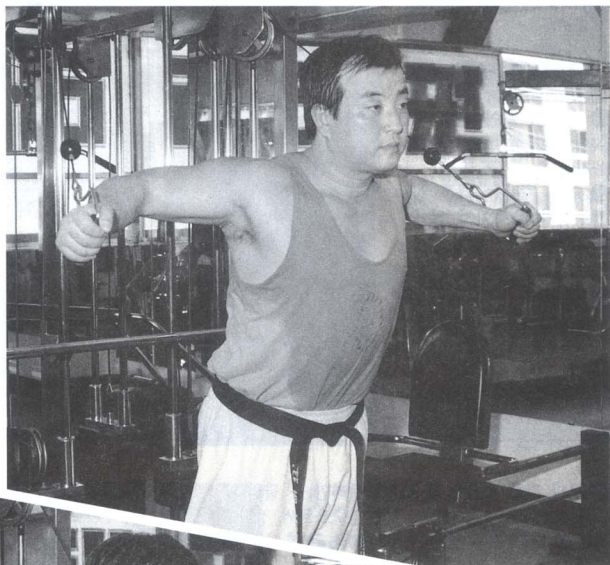
CABLE FLY

❶ 자세

① 케이블 머신이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머신 중앙에 위치하여 두 손에 각각 손잡이를 잡는다. 만일 케이블 머신이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진과 같이 체스트 웨이트 머신 앞에 서서 두 손에 손잡이를 잡는다.

②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다.

③ 두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어깨높이에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❷ 동작

① 두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두 팔을 몸 앞으로 잡아 당겨서 두 손잡이가 실시자의 배 높이에서 맞닿도록 한다.

② 천천히 두 팔을 몸 옆으로 벌려 두 팔꿈치가 조금 구부러진 상태에서 어깨높이 정도로 오게 한다.

❸ 호흡

① 입으로 내뿔며 두 팔을 몸 앞쪽으로



잡아당겨 손잡이를 배 앞에서 모은다.

② 코로 들어 마시며 두 팔을 몸 옆으로 벌린다.

「 앞맞은 무게와 반복횟수 」

자세의 흐트러짐 없이 즉 상체가 앞으로 흔들리거나, 동작을 끊임없이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① 두 팔꿈치가 항상 조금 구부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만일 곧은 팔로써 이 운동을 실시하면 어깨 앞부분에 상해를 입기 쉽다.

② 두 팔을 앞으로 모으는 동작보다는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더욱 천천히 하도록 한다. 두 팔을 벌리는 동작을 너무 빨리 실시하며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기 쉽다.

③ 대흉근에 보다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1초 내지 2초 동안 머무르면서 대흉근에 긴장을 주면 더 큰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 응용동작 」

① 만일 케이블 플라이 머신이나 체스트 웨이트 머신이 없는 경우, 상기의 운동효과를 보려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두 손가락을 깎지끼고 배 앞에 위치시킨 다음 두 팔을 서로 몸 중앙을 향해서 6초간 밀고 2~3초간 쉰 다음 다시 6초간 미는 동작을 3~4차례 반복하면 상기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한쪽 대흉근의 발달을 다른쪽 보다 우선적으로 보려면 한쪽 케이블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몸 옆에서 앞으로 잡아당기며 이때 무릎을 조금 더 구



▲주먹과 발의 공격을 실재없이 주고받는 태권도 경기. 주먹의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펙덱이나 케이블 플라이와 같은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

부리고 상체를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발달 근육 」

- 대흉근
- 소흉근
- 삼각근
- 광배근
- 전완근

「 발달동작 」

- 어퍼컷트 혹은 훅을 치는 동작의 파워강화
- 어떤 물체나 격투기 상황에서의 상대방을 겨냥한 동작의 발달

검도 KENDO

검도 도장을 다시 살리자는 움직임

어려운 여건 이겨내는 아사가스미 연성관

검도도장을 살리자.

일본의 검도도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소년수련생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특히 학교나 공공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검우회(劍友會)나 스포츠소년단이 아닌 사설도장들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 경영이 힘든 상태다.

일본의 검도월간지 <검도일본=99년 6월호>는 도장을 다시 살리자는 뜻으로 도장재생(道場再生)을 특집으로 실었다. 역시 소년수련생 인구

의 감소로 타격을 받고있는 한국의 태권도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간추려 보겠다.

사이따마현 아사가스미시에는 아사가스미 연성관(鍊成館)이라는 검도도장이 있다. 지난 77년 창설된 이 도장은 관장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보내고있던 가운데 자신도 검도를 배우기 시작한 어머니들이 힘을 합치는 등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마당으로서 도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도장이 창설된 지 20년 남짓 사이에 관장이 4명 갈라지고 현재의 관장은 기라 7단이다. 다른 도장과는 달리 관장의 교체가 잦은 편이라 여걸지 모르지만 이 도장은 소유주와 관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 검사(劔士)들의 파위가 아사가스미 연성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아사가스미 연성관은 아사가스미의 검도연맹회장이자 시의회 의원이었던 고(故) 마에다 초대관장이 이 땅의 소유주인 고(故) 오기하라 씨에게 제의해서 건설한 것이다.

마에다 초대관장의 건강이 나빠지자 기따하라 2대 관장에게 그리고 다나다니 3대관장에게 자리가 이어졌고 다나다니 관장의 청력이 나빠지자 스스로 지도하기 힘들다고 판단, 현재의 기라 관장에게 도장의 지휘권을 넘겼다.

전 관장이며 현재도 명예관장으로 활발히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다나다니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린이는 같은 나이라도 감각에 따라 개성에 따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라 성장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루지 않으면 검도를 계속하겠다는 열의를 잃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이 아이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해서 지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훈련을 철저히 가르치는 한편 사설도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은 올려야 하므로 한편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에게 특별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선배들이 남긴 성적을 이해하고 그 성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특색은 여성수련생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어머니교실의 멤버들이다. 12년쯤 전에



▲기초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아사카스미 연성관의 어린이 수련생들.

고 있다.

「참으로 신기해요. 기라 관장님이 매우 성실하게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4단도 되고 5단도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검도를 시작하면

어린이들 따라갔다가 배운 어머니들 이제는 5단이 6명, 4단이 3명이나

어린이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어머니들에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검도를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더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의 주 3회 오전중의 어머니검도교실이 탄생했다.

검도의 재미에 사로잡힌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도장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꾸준히 계속한 바람에 지금은 5단이 6명이나 되고 4단이 3명이 되는 등 유단자들이 줄줄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 어머니 유단자들은 직접 지도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어머니교실의 인원은 늘 20명 가량에 이르

아이들도 중도에서 그만두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강해지면서 지도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순환이라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어머니교실의 실질적인 간사 역을 맡고있는 고마쯔 5단이 말한다.

「어린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검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에 어린이들도 느끼는 바가 있게 마련입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그렇구나 어머니는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집안 일을 돌보시면서 열심히 검도도 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합니다.」

「가라 관장의 말이다.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중학생, 고교생인 형들이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용구착용을 도와주는 등 보살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런 일은 도장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죠. 자연히 이런 분위기가 빚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이죠.」라고 어머니인 고마쥬 5단은 설명한다.

「어린이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의 입장에서 스포츠클럽 등과 달리 도장이라는 사실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장이라는 곳은 인간형성(人間形成)을 이루어주는 마당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점에 매력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주고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행사가 충실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21세기의 일본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도장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교육의 마당으로서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원회 회장인 와다 6단의 말이다.

어린이들을 실제로 맡긴 아버지들에게 도장은 어떻게 매력에 있는 마당이다.

그것은 아사카스미 연성관이기 때문에 내려질 수 있는 평가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사카스미 연성관의 운영방법 지도내용 등은 앞으로의 도장이 어떻게 존재해야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도 JUDO

경제불황 이겨낸 일본의 뜨거운 여자유도 불

농구, 배구, 야구 등은 크게 타격 입었는데도

경제불황이 국내스포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우리 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에서 경영압박을 받게된 많은 기업체들이 스포츠팀을 해산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농구, 배구, 야구 등의 명문실업팀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의 여파로 없어졌으나 유독 일본이 국기로 내세우고 있는 유도만은 불황의 바람을 타지 않고 건재하다.

특히 여자유도는 인기 높은 다무라의 활약을 타인지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실업여자유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도쿄의 요요기 제 2체육관에서 치러진 여자유도의 일본선발체급별 선수권대회에는 37명의 실업단선수들이 출전함으로써 실업단선수 참가 최다기록과 타이틀을 이루었다.

관중석에 자리잡은 대원단으로부터는 우렁찬 성원이 보내졌고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렸던 48Kg

급 결승에서 다무라 료코(도요타 자동차)와 나가이 준코(고마쥬)가 대결했을 때는 마이크를 단 심판의 지시가 들리지 않을 만치 떠들썩했다.

대회주최자인 전일본유도연맹의 관계자들도 <활기가 넘쳐 좋다>고 즐거운 표정이다. 전일본유도연맹에 따르면 현재 가맹하고 있는 여자실업팀은 17개에 이르고 있단다.

<일부 없어진 곳도 있지만 애당초 유도부를 창설할 때부터 별로 성의가 없었던 곳만 자연 소멸한 느낌이다.>라고 전일본유도연맹의 사무국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전일본강화지정선수(우리 나라로 치면 대표 1진이나 2진 선수)를 안고있는 유력팀에서는 여자유도부의 규모축소는커녕 오히려 새로 전용도장을 만드는 등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에서 일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예모도 유포를 배출시킨 스미모토 해상화재는 재작년 12월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지난 1월의 '99 후쿠오카 국제여자유도 48kg에서 우승한 일본유도의 여왕 다무라 료코(오른쪽)가 준결승에서 쿠바의 시봉을 공격하고 있다. 다무라는 여자유도 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철근 4층의 도장을 완성했다.

경기장이 2면이나 나올 수 있는 매트 176장의 도장을 비롯, 웨이트 트레이닝장, 회의실 밖에도 숙박시설까지 완비한 전용도장이다.

〈그때까지 만해도 고도장(講道館)이나 대학에서 도장을 빌려 훈련을 가졌었으나 전용도장을 회사가 지어주는 바람에 독자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합동훈련의 요청도 밀려들어 우리 선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야나자와 감독은 말한다.

인사부의 다카하시 스포츠진흥과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뜻도 있지만 단지 광고선전만으로 여자유도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도는 경기면에서도 세계에 통용된다는 매력 있다. 또

한 노무직(勞務的)인 발상에서도 동료들 하나를 묶는 일체감을 낳는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내부에서도 여자유도부에 대한 이해는 빚어져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선수는 전원을 일반채용으로 충당하고 특별채용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단다. 오전 중에는 각자 소속 부서에서 일하고 오후에야 모여서 훈련에 열중한다.

한편 오사카의 미키하루스도 스미토모 해상화재와 경쟁이나 하듯이 지난 봄 탁구장을 병설한 전용도장을 9억엔 (약 90억원)을 들여 지었다.

미키하루스는 사원의 90%가 여성이라는 기업 이미지에 여자유도가 맞는다고 89년에 여자유도부의 선구적인 존재로서 탄생했다.

'92 바르셀로나, '96 애틀랜타의 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얻거꾸 따낸 다

나메 요코 등 스타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의 메달리스트를 배출해냈다. 운동부 담당의 사와이 계장은 〈미키하루스는 유도 말고도 탁구, 야구, 육상, 테니스 등 9개 종목의 운동부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개인종목이며 대회일정도 짧은 편인 유도는 구기종목과 같은 단체경기종목과는 달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앞으로도 소수정예로 힘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털어놓는다.

전일본유도연맹의 도리우미 사무국장은 〈유도는 기업의 광고탑일 뿐만 아니라 무도정신이 지니고 있는 훌륭함이 회사의 기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환영받는 종목이다.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가라데 KARATE

일본의 경식가라데 2000년 시드니에서 세계대회 갖는다

수퍼세이프라는 호구 내세워 세계화 겨냥에 안간힘



▲70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됐다고 주장하는 소림사류권행관 가라데의 호구인 수퍼세이프 - 다른 유파에서도 사용하고 있단다.

일본 가라데도 중국의 우슈처럼 유파가 많기로 이름나있다. 그 가운데는 제일동포 고(故) 최영의 관장의 호구를 걸치지 않고 겨루는 극진가라데가 있는가 하면 얼굴과 몸통에 호구를 걸치는 경식가라데도 있다.

이 경식가라데는 수퍼세이프라는 호구 탓에 안전성이 보장되고 또 호구가 경기동작을 방해하지 않아 세계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주장한다.

수퍼세이프는 소림사류권행관(少林寺流拳行館)가라데가 탄생시켰다. 하사다가 9단은 호구개발이야말로 가라데의 경기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기고 그 개발에 힘써왔단다.

정통 가라데는 원래 경기를 치를 때 호구를 착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는 격투기용 호구가 없어 야구의 포수가 착용하는 마스크나 검도의 마스크 등을 시험삼아 착용해 보았으나 역시 격투기용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멀리하게 됐고 가라데의 주류는 현재 일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순도메(寸止=상대방 급소 앞에서 공격을 멈춤) 룰로 옮겨갔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치지 않는 격투기는 진짜 격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극진가라데가 직접 타격제 룰을 마련했으나 역시 손으로 얼굴을 못치고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림사류권행관은 가라데의 세계화를 위해 서는 ▲남녀노소가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명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가라데의 전통기술을 살릴 수 있을 것들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호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사다가 9단은 복싱의 헤드기어, 펜싱의 마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스크, 미식축구의 프로텍터, 아이스하키의 프로텍터 등 현행 스포츠에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 호구류를 모두 참고 삼아 가라데 경기에 필요한 호구부품을 연구개발했다.

이 연구결과 공격으로 가해지는 대미지를 경감시키는 강화플라스틱의 구면(球面)구조의 마스크를 탄생시켰다.

또 몸통의 호구에는 글라스파이버를 담아 하복부를 상당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발을 들어찰 수 있는 디자인을 채용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수퍼세이프호구가 일본에서는 아직 그다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인기의 비밀은 역시 실전성과 안전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데다 경기스포츠로서의 재미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스포츠로서의 재미는 한판제와 채점제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경식가라데의 경기룰에서 찾을 수 있다.

가라데의 무도적인 일타필도(一打必倒)에 통하는 일격, 또 연타에 의한 전의상설에는 한판을 주지만 명확한 한판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손기술은 1점, 발기술은 2점의 포인트제로 경기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힘껏 겨루게 되어 있다.

실사 많은 포인트를 빼앗기고 있다가도 통렬한 일격에 의한 한판으로 대역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어 경기내용만 좋으면 유도나 복싱 같은 재미를 느낄



▲다른 유파의 가라데에서는 거의 쓰지 않게 된 손날(手刀) 공격도 경식가라데에서는 유효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 러시아 등 60개국에 퍼져있다는 경식가라데는 지난 80년부터 세계대회를 치러 이미 11회를 넘겨 세계화의 기반도 어느 정도 다져진 것으로 보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같은 시기에 시드니에서 세계대회를 열어 세계에 크게 선전하는 한편 올림픽정식 종목채택의 발판을 마련할 속셈이다.

올림픽종목 채택에 장애 통일되지 않은 일본의 가라데계

일본의 가라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의 우슈, 태국의 무에타이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올림픽정식종목에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라데의 경우 일단 IOC(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종목까지 됐으나 무도가라데와 경기가라데의 분열이 수습되지 않아 IOC가 승인을 잠정 유보하는 사태까지 빚었고 이번 호에 소개한 경식가라데는 경식가라데대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라데의 올림픽정식 채택신청은 각 유파의 통합이 가장 선결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각 유파는 각 유파고유의 무도철학과 주장을 지니고 있어 원만한 통합이 단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태권도의 홍보화보와 영상물제작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조금 놀라게 만든 것은 문화관광부가 태권도홍보상의 약점으로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쿵후에 견주어 태권도가 한국고유의 무술이라는 인식도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점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중국의 쿵후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액션스타 이소룡의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다.

일본의 가라데만 하더라도 제일동포 고(故) 최영의(일본이름 오오야마 마스다쯔) 관장이 맨손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을 통해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마련이다.”라는 말은 맞는 셈이다.

태권도인을 소재로 삼은 재미있는 액션영화나 TV시리즈가 나왔더라면 태권도도 쿵후나 가라데보다 앞서서 한국고유의 무술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몽고씨름, 고대 인도권법, 중국권법(남권, 북권, 소림사권) 등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격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최영의 관장은 그의 저서 <100만인의 가라데>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지(경희대), 고(故) 김광성(용인대)

스포츠진화론과 태권도, 태권

스포츠들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으로 황소 뿔을 쥐고 세계를 돌며 다른 격투기의 고수들과 대결한 일대기가 만화주간지인 <소년매거진>에 극화로 연재되어 많은 인기를 모으고 난 뒤에야 일본무도계에서 유도 못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최영의 관장은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가라데가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는 프로레슬러 역도산(한국이름 김신락)과 액션스타 이소룡의 공이 컸다. 역도산이 프로레슬링에서 휘둘렀던 가라데춤(KARATE CHOP)이 진짜 가라데 기술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라데라는 무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이소룡의 통쾌한 쿵후영화는 같은 동양의 무도인 가라데를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그러고 보면 양진방 교수(용인대)의 “격투기는

두 교수가 함께 지은 <한국태권도사>에서는 “고구려 제 10대 산상왕 13년(209년)부터 427년까지 수도로 정해졌던 환도성의 무용총 현신벽에 그려진 태권도의 원류로 보아야할 겨투기의 그림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간 해보다 93년 내지 311년 앞서있음으로 태권도는 소림사권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탄생한 한국고유의 격투기”라고 쓰여져 있다.

태권도의 고(故) 홍종수 원로도 생전에 “북태남권(北踏南拳)이라는 말대로 태권도는 북방계 격투기로서 태(跆拳道)를 많이 쓰는 것이 특징인 무도다.”라고 말했다.

무도철학의 신체적 발현인 태권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물놀이, 탈춤 등처럼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이름난 스포츠전문 잡지인 <스포츠 그레

픽 넘버)의 '88 서울올림픽 특집호는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썼다.

“아마도 한국인이 낳은 문화유산 가운데 태권도처럼 세계적으로 보급된 문화는 없을 것이다.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이조의 도자기나 현대의 자동차보다도 어찌면 김치나 갈비보다도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침투한 것이 태권도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태권도가 한국고유의 무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9세기에 다윈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진화론(DARWINISM)은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으로서의 적자생존(適者生存=생존경쟁에서 외계의 상태나 변화에 적합하거나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멸망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낳았다.

진화론은 스포츠의 세계에도 도입되어 스포츠 진화론(SPORTS DARWINISM)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고있다.

스포츠도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라지고 만다는 주장이다. 일본 고유의 무도라는 유도(柔道)의 유능제강(柔能制剛)=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는 발상의 바탕인 <아와라> (柔)는 중국의 무도인인 진원빈이 일본으로 건너가 전해준 것이라한다.

근대유도의 기술 가운데도 한국씨름, 몽고씨름, 러시아의 삼보 등의 기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일본유도는 옛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

일본의 가라테만 하더라도 중국의 남권(南拳)이 오기나와에 전해져 중국을 가르치는 가라테(唐手)로 자리잡았다.

중일전쟁과 2차대전을 계기로 당시 적국(敵國)이었던 중국을 뜻하는 가라(唐)를 피하기 위해 발음이 같은 가라(空)를 붙여 오늘날의 가라테(空手)가 된 것이다.

일본본토에 가라테가 오기나와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고작 1920년대의 일이다.

따라서 가라테에 대한 인식은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낮아 최영의 관장은 “사실 2차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가라테의 이미지는 나빠 맨손무도를 다룬 영화에서는 언제나 좋은 사람은 유도인이었고 나쁜 사람은 가라테인이었다.”고 돌이켰을

정도다.

복싱도 진화하고 있다. 지금은 복싱의 대표적인 전법으로 꼽히고 있는 경쾌한 다리놀림을 살린 히트 앤드 어웨이(HIT AND AWAY)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892년 짐 코베트(미국)가 당시의 헤비급 세계챔피언 존 설리번(미국)을 21회 KO로 물리친 타이틀매치에서였다.

또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는 명치굴치(SOLAR PLEXUS BLOW)가 처음 선보인 것도 1897년 밥 피치몬즈(미국)가 헤비급 세계챔피언 짐 코베트를 14회 KO로 이기고 왕좌에 올랐을 때였다.

잡이라던지 더블펀치 등도 20세기 들어서야 널리 쓰이게 되기 시작한 기술들이다.

태권도도 눈부신 진화를 이룩함으로써 온 세계 지구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무도 스포츠다.

일본의 격투기전문 잡지인 <격투기통신>(88년 12월호)은 이렇게 썼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태권도는 한국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아니라 경기스포츠로서의 태권도다. 안 전성에 대한 배려, 알기 쉬운 승패, 기타 경기를 성립시켜 갖가지 요소를 지금의 태권도는 모두 갖추고 있다.”

태권도의 뿌리는 태권이다. 하지만 경기기술만 하더라도 나래차기, 뒤돌려차기 등 새로운 기술 개발로 꾸준히 진화를 이룩해나가고 있는 현재의 태권도는 태권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태권이란 한마디로 한국무도의 근원이다. 태권도도 태권으로부터 태어났다.

태권을 현대적인 스포츠로 만든 것이 태권도다. 태권과 태권도의 차이는 태권도가 직접적인 움직임은 나타내는데 건주어 태권의 움직임은 꼭 선적이고 또 중흥무도이기 때문에 태권에는 기술에 제한이 없어 손에 의한 안면공격과 매치기 기술도 있다는 점 등이다.”(정경화 태권지도자)

그러나 태권도와 태권의 가장 큰 차이는 태권도가 무도스포츠로서 꾸준히 진화해나가는 반면 태권은 진화를 꿈꾸지 못하고 한국고유무예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도의 화석(化石)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아닐까?

만약 태권이 진화를 시도할 경우 그 원형을 잃게되어 무형문화재로서의 뜻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합리적 무도스포츠인 태권도의 뒤를 따르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협회

협회장기 및 전국체전 2차 선발대회 개최

서울시협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국기원에서 제 20회 서울시협회장기 초·중(남녀)·고(남녀) 겨루기대회 및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고등부) 2차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계급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박재완, 최경진, 한용민, 김도진(이상 경수), 김대통(신목), 이승규(광희), 이인호(석촌), 윤여형, 윤미라(이상 수색), 김광중(신정), 허훈(강덕)

▲남중부 이한홍, 이백민(이상 중화), 박형선(창복), 이성은(고덕), 최기창, 박종명(이상 시흥), 문형후(중화), 김광년(경수), 김명기(배명), 장상우(전동), 신경용(강북)

▲여중부 김보람(고덕), 하지연(중계), 홍희진(중계), 하경요, 강민경(이상 성서), 이선화(도봉), 강진선, 김수진(이상 강북), 유정은(용강), 양정일(시흥), 최윤수(중계)

▲남고부 김정근, 한동훈, 김준태, 김봉수, 최희중(이상 한성), 김민철, 박재현(이상 송곡), 백봉현(동성)

▲여고부 박효주(서울체), 최미영(리라공), 백재현, 윤현숙(이상 송곡), 김수관(경성여실), 이선미(은광여), 배은주, 고유리

(이상 송곡여산)

<김현태 리포터>

대구광역시협회

전국체전 2차 평가대회 개최

대구협회는 지난 5월 15일 대구체육관에서 전국체전 2차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 모두 135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었는데 부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남고부 이왕호, 임영준, 황성룡(이상 강북), 정남영, 홍성태(이상 경상공업), 강용길, 김기중(협성), 김상한(중앙정보)

▲여고부 정은영(경명여), 윤옥주(영송여), 여혜미, 안은미, 구미희, 배미경(이상 구남영정보), 정동희(동부여), 박소연(대구정보관광)

▲대학부 임호진, 김호권(이상 영진전문), 박천덕(경희) ▲남일부 성진옥, 구태우(이상 으뜸체), 김보상(대륙체), 김태훈, 최형민(이상 계명체), 박희재(화랑체), 이춘식(무궁화체)

▲여일부 박수정, 이윤주(이상 동대구체), 지은경(화랑체)

대구 경상공고 태권도 전용체육관 개관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교장 김익원)가 태권도부

주한영국대사, 이규형 미동초등학교 태권도시범단 단장에 편지 “여왕 방문 때 보여준 어린이 태권도 시범에 감사”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부부가 지난 4월 19일 한국을 방문, 미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주한영국대사가 미동초등학교 이규형 단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스테판 브라운대사는 “여왕의 방문은 매우 성공리에 끝났으며 특히 태권도 시범은 주목할만 했다.”며 4월 19일자 런던타임즈의 머리가사로 시범단 어린이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고 전했다.

주한영국대사의 편지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왕께서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보여주신 귀하의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왕의 방문은 매우 성공리에 끝났으며, 특히 태권도 시범은 주목할 만 했습니다. 여왕 방문 첫날인 4월 19일자 런던타임즈 신문에 전면 머리가사와 시범단 어린이의 사진이 나온 것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규형 단장의 태권도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범이 언론매체의 전면을 장식하며 전세계 독자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태권도의 광고효과가 대단히 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0년 올림픽 경기종목 중 최고의 종목이 될 것임을 바라고 또한 시범단원들이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되어 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Stephen Brown HM Ambassador 주한영국대사



▲태권도 전용체육관 개관식 모습.

전용체육관을 건립했다.

경상공고는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 학교 신관 건물 5층에서 김연철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 태권도 협회 임원, 학부형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용 태권도 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2월 9일 착공, 약 3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이날 준공된 태권도 전용체육관은 지난해 제 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편급에 이영목 선수(2) 라이트급에 박진호 선수(3)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1억 2천만원의 지원받고 학교 자체 예산 5천만원을 부담 총 1억 7천만원을 들여 초현대식으로 지어졌다.

이 체육관은 총 2백평 규모로 2개의 경기장을 비롯해 샤워장과 웨이트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경상공고 태권도부는 지난해 동문회, 학부형회, 학교측이 약 5천만원을 투자하여 1백여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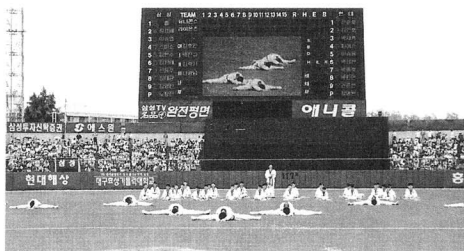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를 지은 데 이어 전용 체육관까지 건립되어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달구벌 시범단」 어린이날 축하시범

달구벌 시범단(대구 우진 체육관 소속)이 프로야구 경기전 어린이날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현대 유니콘스의 4차전 경기에 앞서 약 1만 3천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삼성 라이온즈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뜻에서 보인 이날 시범은 송판격과, 태권에어로빅, 창작품새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어린이 날 축하행사로 달구벌 시범단이 태권 에어로빅 시범을 보이고 있다.

6월 보훈의 달 기념

태권도 수련생들 통일대행진 걷기대회

서울시내 태권도 수련생들이 약 70km에 달하는 임진각까지 걷기대회를 가졌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시내 일선 도장관장들의 모임인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이선복)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국토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강한 태권도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고려체육관을 비롯하여 10개 도장에서 수련생 243명이 참가했다.



▲통일대행진 걷기대회에 참가한 수련생들의 모습.



는 내용으로 야구장에 모인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가수 엄정화의 '포이즌' 노래와 함께 보인 태권 에어로빅 시범에서는 야구장에 모인 1만 3천여명의 관중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하는 등 절정을 이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였다.

〈진식 리포터〉

충청남도협회

제 27회 충남 소년체육대회 개최

제 27회 충청남도 소년체육대회가 지난 4월 7일 ~ 9일(3일간)까지 보령시민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시·군 대표 선수 306명이 출전한 가운데 단체 우승은 천안교육청, 준우승은 공주교육청, 3위 연기교육청이 차지했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김찬수(태안장기), 이성규, 구영섭, 이기섭(이상 보령청파), 전대진(홍성홍남), 오윤석(당진상록), 김정수(부여), 최상권, 봉재훈(이상 논산용남), 최석훈(서천서남), 최광훈(당진삼봉) ▲남중부 임재승, 강우성, 박종근(이상 공주), 변성훈(부여 백제), 이민호, 송지훈(이상 천안북), 최민형(연기조치원), 한민영(태안장기), 김영훈, 김영진, 이지훈(서천) ▲여중부 사영주, 정아영, 이세진(이상 연기조치원), 이상숙, 양지선, 김은옥, 박상협, 감미향(이상 부여백제), 임지은(천안여), 박현미(서산여), 윤경(아산은양여)

교육감기 겸 체전 1차 선발전 개최

제 10회 충청남도 교육감기타기 겸 제 8회 전국 체육대회 1차 선발 태권도 대회가 3월 12 ~ 14일(3일간) 보령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초등부 201명, 여초등부 33명, 남중부 174명, 여중부 46명, 남고부 111명, 여고부 32명 등 총 507명이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부별 단체 우승은 남초부 - 보령 청파초등, 남중부 - 천안북중, 여중부 - 부여 백제중, 남고부 - 충남체고, 여고부 - 충남체고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최민영(조치원중), 우수상 최관호(충남체고), 지도자상 김광호(충남체고 코치)가 각각 차지했으며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남초부 안일영, 이성규, 이기섭(이상 청파), 이운재(인세), 이동건(중앙), 류현규(안중), 김정수(부

여), 박치호(월광), 임헌진(종촌), 봉재훈(용남), 최광훈(삼봉) ▲여초부 조아람(홍남), 구영미(전동), 강대화(명지), 남정희(대관), 김성희(신관), 김문희(금산), 권예림(한내), 조효미(초락), 정아라(송악), 임부선(금성), 채지영(합동) ▲남중부 임재중, 강우성, 박종근(이상 공주), 주영환, 이민호, 송지훈(이상 천안북), 최민영(조치원), 송기화, 김영훈, 이지훈(이상 서천), 편의장(서산) ▲여중부 사영주, 이세진(이상 조치원), 이수진(천안서), 이상숙, 양지선, 김은옥, 박상협(이상 백제), 임지은, 류맑음(천안), 김진주(창기), 윤정(은양) ▲남고부 최기연, 이종민(천안농), 최관호, 강순권, 최기정, 서성혁, 강경도(이상 충남체), 신언철(영명) ▲여고부 강희민, 민봉녀, 장주현, 장부자, 임정아, 김효진(이상 충남체), 이현정(천안농)

태권도학회, 신임회장에 진중의 교수 추대

오는 9일과 12일에 학술세미나 개최



▲진중의 교수

태권도학회는 지난 5월 29일 삼성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한 정찬모 회장(단국대 교수)의 후임에 웅인대 진중의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모임에서 태권도학회는 전

회장인 강원식 웅인대 겸임교수, 정찬모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김경지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장, 조근중 한양대 체육대학장,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진중의 웅인대 교수 등 5명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해 앞으로 중진, 신인 학자 30명을 이사로 선임한 후 각 연구 분야를 구성키로 했다.

진중의 신임회장은 태권도학회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소식지 발간, 오는 9월과 12월에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사단법인화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품새 보수 교육 및 경기규칙 강습회

품새 보수 교육 및 경기규칙 강습회가 보령 실내체육관에서 200여명의 수강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이종승 회장은 99년도 기술 심의회 분과 위원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품새 교육은 이규현 국기원교육위원장이 맡았으며 경기규칙에는 박문식 경기위원장과 김태우 심판위원장이 진행했다.

◀충남협회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기술심의회회장=양준목

부의장=조정연, 전병덕, 양종목

▲기획분과위원장=정창주, 차장=장백규

▲연구개발위원장=김용건, 차장=한권상

▲홍보분과위원장=강광서, 차장=정영훈

▲경기분과위원장=박문식, 차장=손병승, 홍순찬

▲심판분과위원장=김태우, 차장=김덕순, 김영근

▲기록분과위원장=배영용, 차장=장남순, 김기영

▲상벌분과위원장=김영덕, 차장=김종겸, 김인선

▲경연분과위원장=정현도, 차장=박현화

▲심사분과위원장=김득권, 차장=김운호, 강성돈

▲도장분과위원장=채경일, 차장=최정우

▲시설분과위원장=이영우, 차장=이태규

▲질서대책위원장=임호신, 차장=노기호, 김준태

▲의전분과위원장=권재일, 차장=명호식, 남학현

▲편집분과위원장=김봉환, 차장=김태권, 김상용

▲경기력위원장=김형중, 차장=최홍준, 신광수

▲사회체육위원장=김상호, 차장=표승범

◀김봉환 리포터▶

경상북도협회

제 37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개최

300만 경북도민의 체육대회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4일간) 포항에서 열렸다.

태권도 경기는 포항수산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375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한 결과 시부 우승은 포항시, 군부 우승은 고령군이 차지했다.

◀김태현 리포터▶

울산광역시협회

제 1회 시장기대회 개최



▲함세열 울산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가 지난 5월 8일과 9일 중화실내체육관에서 제 1회 울산광역시시장기장기대회 개최를 가졌다.

울산시장 문화체육국장, 울산시 교육감, 강북 교육장, 강남 교육장 등 많은 내외 귀빈과 1500여명의 학부모가

관전한 이번 대회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전국대학태권도학과 학술세미나 개최

전국대학태권도학과연합회(회장 이기호·전태연)는 지난 5월 7일 강원대 국제회의실에서 제 1회 전국 태권도학과 재학생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1세기 태권도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학생 입장에서 제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경희대, 용인대, 조선대, 계명대, 한체대, 경원대 등 6개 대표 1명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탐라대 태권도학과 특강

하태은 교수 초청

“21세기 태권도 지도자의 연구방향”

탐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5월 8일 육군삼사관학교 하태은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태권도 지도자의 연구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하태은 교수는 현재 태권도 교육의 문제점, 태권도 교육의 활성화 방안, 아동을 위한 인성 태권도의 실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충청대학

태권도 선수단, 제 4회 하노이국제태권도대회 참가 남자부 출전 - 금 2, 은 1, 동 2개 획득



▲경기에 앞서 각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충청대학 태권도 선수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4회 하노이국제

태권도대회에 출전, 우수한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6개국에서 모두 10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남·녀부 경기가 펼쳐졌다.

오도균 스포츠외교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충청대학팀은 남자부 경기에 8명의 대표가 출전해 미들급 이영관, 헤비급 박현석이 금메달, 밴텀급 이주영이 은메달, 페더급 오기택과 웰터급 하형훈이 동메달을 획득, 남자부에서는 베트남팀과 함께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남·녀부 종합성적을 바탕으로 한 단체상 시상에서는 베트남 대표팀이 금 5, 은 3, 동 3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베트남 경찰팀(금 2 은 2 동 4), 3위는 중국 후안팀(금 2 은 2 동 3), 4위는 한국(금 2 은 1, 동 2)이 차지했다.

태권도 문화사절단 창단 1주년 기념식 개최

충청대학은 지난 5월 15일 충청대 무도관에서 오경호 이사장, 정종택 학장과 체육학부 교수를 비롯해 스포츠외교과와 사회체육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문화사절단 창단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화랑정신으로 태권도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의 출생지(충북 진천)를 찾아 참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및 태권도 불모지에 파견되는 스포츠외교과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석강 교수 체육장학회」를 설립키로 하고 기금모금을 시작, 이날 태권도 담당교수들이 앞장선 가운데 2000여만원을 모금했고, 앞으로 2000년도까지 1억원, 2005년도까지 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충청대는 본관 3층 60여평의 태권도 전문도서관을 확보하고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태권도 판

련서적, 논문, 정기간행물, 신문, 기념품 등을 확보, 진열했다.

충청대는 국내외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태권도 전문도서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경호 이사장(가운데)을 비롯해 태권도 지도교수 및 학생대표가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협회발전에 공로가 큰 주석돈, 박동일 이사, 임재익 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회 종합성적〉 ▲초등부 1위 우정초 / 2위 옥서초 / 3위 함월초 / 지도상 박재완(우정초) ▲남중부 1위 울산중 / 2위 농소중 / 3위 서생중 / 지도상 손효봉(울산중) ▲여중부 1위 옥동여 / 2위 태화여 / 3위 언양여 / 지도상 김민호(옥동여) ▲남고부 1위 방어진고 / 2위 경영정보고 / 3위 울산공고 / 지도상 김용수(방어진고) / ▲여고부 1위 서여상 / 2위 방어진고 / 3위 학성여고 / 지도상 허현배(서여상) <박성배 리포터>

전라남도협회

초등학교 태권왕기 순천 동산초 종합우승



▲종합우승을 차지한 순천 동산초등학교

제 16회 초등학교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가 5월 1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단체 4팀, 개인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유선각(동산초), 허 훈(동산초), 이충열(동산초),

박주현(한려초), 김재원(신흥초), 최석현(동산초), 이재용(부영초), 이영진(한려초), 조상현(한려초), 조용익(연향초), 최 흥(동산초)

<단체종합성적>

▲1위 : 순천 동산초 ▲2위 : 여천 무선초
▲3위 : 여수 한려초 ▲감투상 : 나주 남평초

전국체전 2차 예선전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2차 예선전이 5월 22일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개최되었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김동근(광양고), 진경남, 배재훈(이상 영광고), 전재훈, 서거룡(이상 구립공고), 정영승, 최인용(이상 압해중고), 임동일(순천공고), 민경덕, 김영복, 이필형, 이동훈, 장용무, 김경민, 박재순(이상 성화대학), 정우기(전남과학대학), 김성이(목포과학대학), 이주승, 정윤희(이상 노안제), 김근호(우성제), 정세미, 윤지선(이상 나주여상), 임경애(예당고), 강수희(진성여상), 김정자(영광고), 정효정(법성상고), 양은정(용인대)

승품 · 단 심사대회 개최

5월 30일 응심자의 편의를 위해 목포서부초등학교와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승품 · 단 심사대회가 개최되었다.

유품 · 단자를 보면

1품 - 177명, 2품 - 113명, 3품 - 31명, 4품 - 5명
1단 - 28명, 2단 - 27명, 3단 - 33명, 4단 - 9명, 5단 - 7명으로 총 430명이다. <홍명국 리포터>

신간안내



▲한상진 교수

태권도 경기심판론' 출간

충청대학 스포츠외교과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46·8단) 교수가 최근 『태권도 경기 심판론』(도서출판 홍경)을 출간했다. 한상진 교수는 25년간의 태권도 수련 및 심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판이론의 체계화를 위해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제 1장 태권도사 ▲제 2장 철학적 심판이론의 존재성과 학문체계 ▲제 3장 태권도 경기와 심판판정의 원칙적 조건 ▲제 4장 심판원의 구성과 의무 ▲제 5장 승패판정과 득점부위의 채점기준의 원칙 ▲제 6장 경기의 종류와 방식 ▲제 7장 주심의 수행적 기능과 위치선정 ▲제 8장 금지행위 ▲제 9장 태권도 경기 심판 수신호 ▲제 10장 태권도 거품새와 발기술 차기 동작 ▲제 11장 태권도 품새 ▲제 12장 경기규칙 해설 등으로 꾸며져 있다.



독서 페이지

소식과 작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관해 겪은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건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보내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등은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의시설 A-3동) 「월간 태권도」 편집실
- ◆전화 : 420-4568
- ◆팩스 : 420-4274
- ◆이메일 : DKY@KOREATAEKWONDO.ORG

PC 태권도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OREATAEKWONDO.ORG)
자유토론장과 방명록, E-mail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ycj11@chollian.net

우리 체육관에는 자폐아동(2~3급 장애)이 2명 있습니다. 모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13세, 14세 어린이인데요, 수련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조금 더 그들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능력과 사회성, 협동정신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하고 싶는데 전문가나 선배 지도자님들의 조언이나 프로그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메일이나 자유토론장에 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마케팅(Marketing)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에서 시작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전문적 기술이 일선에서 뛰고있는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백화점 통계에 의하면 기존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6배나 힘들다고 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 홍보한 결과 많은 수련생을 확보했어도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관리 소홀로 확보한 수련생들 보다 더 많은 수련생들이 퇴관을 했다면, 오히려 홍보 활동비를 투자하지 않고 적은 인원의 수련생이라도 알찬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관리로 수련생을 유지한 것이 경영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많은 수련생들을 확보하는가 보다 어떻게 기존의 수련생들을 잘 관리 할 것인가를 우리 지도자들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실 생활에서, 특히 태권도장 경영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태권도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창조와 고객유지이다. 오늘날 마케팅 부문이 도장경영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어 도장경영 자체가 바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객창조와 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은 고객만족이다. 고객만족 없이는 고객이 창조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고객만족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인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야한다. 이 말은 고객감동의 단계로 고객만족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만 타 체육관과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고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정신과 이의 실천, 지성이면 감천의 자세로 고객이



박 영 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상주의를 경영이념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차이는 무엇일 까?

고객의 기대수준과 같은 수준의 만족이 고객만족 이며, 고객의 기대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고객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의 기대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는 고객 불만의 요인이 되어 고객은 떠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객의 행동변화를 통

한 고객감동을 실현해야 한다. 그 성과로서 나타나 는 것이 수련생 확보 및 점수를 그리고 이익이다.

고객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고객만족의 수준보 다 한 단계 뛰어넘는 고객감동의 수준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창조한 고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권도 마케팅! 이는 수련생과 그들을 둘러싼 학 부모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 작된다.

우리는 태권도 가족

박 성 자

(충북 오륜체육관 주부·1단)

오늘도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서둘러 오륜태권도장으로 향한다.

이렇게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내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큰아들 용하가 초등학교 에 입학하던 96년 봄.

우연한 기회에 우리 마을에 어머니 태권도교실을 운 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는 평소 허리가 아

파 내 몸에 알맞은 운동 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태권도를 한다는 것은 무 척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어떻게 여자가 태권도 를... 그것도 삼십이 넘 은 아줌마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 다.

며칠이 지나 떨리는 마 음으로 오륜태권도장(관 장 김경수)을 찾아가다. 100여명의 어머니들이 열 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 다. 힘찬 기합소리와 함 께.

처음에는 무척 쑥스러웠다. 입은 물론 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폼새와 기본동작은 너무나 생소한 동작들이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지도해 주서 서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갔다. 집밖에 모르던 내게 새 로운 삶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그날 배운 동작을 선보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아팠던 허리도 언제부턴가 신기하게 나았다. 남편은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 실력으로 언제나 나의 사범이

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다. 그러나 만아들 용하는 내성적이고 소심 한 성격이라 나는 많은 걱정을 했다

여러 아이 틈에서 잘 적응해 갈지, 그러나 기우였다. 태권도 수련 후 용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해 하는 폭도 넓어지고 어떤 일یدن 자신감을 갖게 되었 다. 물론 성격도 활발해졌다.



▲우리는 태권도 가족. 아빠 황인갑 2단. 엄마 박성자 1단. 첫째 용하 파랑 띠, 둘째 청하 초록 띠.

매달 보는 승급심사는 아이에게 큰 희망이었 다. 흰 띠에서 노랑 띠, 노랑에서 초록 띠.

비록 서툰 동작이지만 엄마보다 잘 하려고 무 진 애를 썼다.

욕심이 많은 둘째아들 청하도 학교에 입학한 후 태권도를 배우게 되 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복 챙기는 일부터 했다. 하얀 도복을 차곡차곡 접 어 책가방에 넣는다. 집 에 와서는 도장에서 배 운 동작 하나 하나를

복습(?)하는 열의까지 보였다.

어리광만 부리던 청하가 어느 날부턴가 변하기 시작 했다. 많이 의젓해지고, 예의범절도 하나씩 하나씩 배 워가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물론 둘이 서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 려는 모습 등을 보면 무척이나 대견스런 마음이 든 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중요시하는 도장 의 교육 방침은 전인교육의 장으로써 전혀 손색이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 14연패, 여자 7연패 위업 달성

6월 2일 ~ 6일 (캐나다 애드먼트)

제 14회 (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애드먼트에서 73개국 619명의 선

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국은 남자가 금 6, 은 1, 여자가 금 3, 은 3개를 따내며 동반 우승, 남자 14연패, 여자 7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내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캐나다 애드먼트 = 임충희>



▶중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정종택 단장 (왼쪽에서 두번째)이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식후 공개행사에서 여자시범단원이 고난도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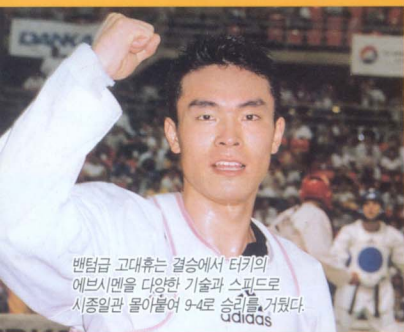
90개국이 참가할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 개회식 모습.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남자부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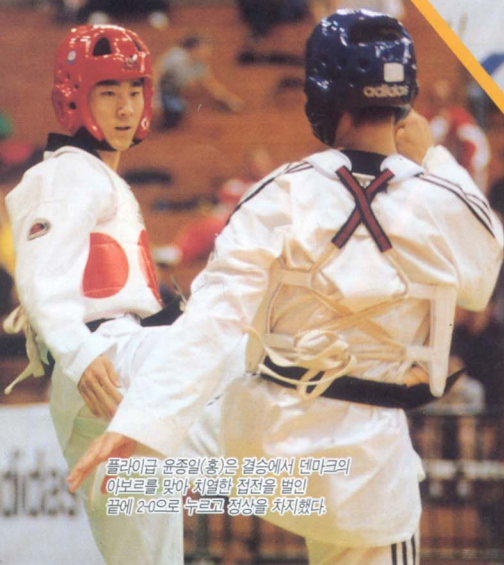
판급, 민병석은 결승에서 필리핀의 로베르토를 3:1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뒀다.



밴텀급 고대휴는 결승에서 터키의 에브시멘을 다양한 기술과 스피드로 시종일관 몰아붙여 9-4로 승리를 거뒀다.



기대를 모았던 김병욱(홍)은 결승전에서 이란의 세이돈 코알을 맞아 분전했으나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플라이급 윤종일(홍)은 결승에서 덴마크의 아보르를 맞아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0으로 누르고 정상에 차지했다.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노원규와 캐나다 에드먼튼 시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고 있다.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남자부 경기)

헤비급 결승에 오른 문대성은 프랑스의 빅토르문비아와 치열한 접전 끝에 4대 판정승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다.



▲29살의 노장 장중오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웰터급 2위는 터키, 3위는 멕시코와 미국이 차지했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꿈을 키워던 마들근 이동원(홍)은 호주의 북병 와렌 헨슨에게 저 에션탈락했다.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여자부 경기)



라이트급 조항미가 세계선수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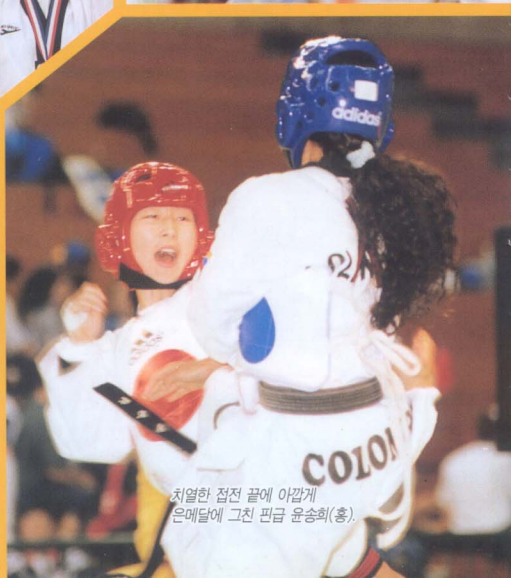
미들급 김윤경(정)을 결승에서
스페인인 아이폴을 8-0
대승리며 정상을 차지했다.



여자 페더급 우승과 함께 세계대회
2연패를 이룬 강해은, 2위는 멕시코(왼쪽)



김일수 코치가 김윤경(미들급)
선수에게 작전을 제시하고 있다.



치열한 점진 끝에 아깝게
은메달에 그친 핀급 윤송희(홍).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여자부 경기)



여고생 국가대표로 기대를 모았던
웰터급 이정민(청)은 대만선수에게
패배, 예선탈락했다.



세계태권도 2원패 기대를 모았던 밴텀급 정재은(맨 왼쪽)은
중국의 왕슈에게 2-1로 패배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영광을
감독이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2위 스페인, 3위 대만, 4위 캐나다.



▲코트에 내보낸 선수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대표팀 임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하다.

▶기대를 모았던 플라이급 심혜영(홍)은
결승전에서 대만의 수주첸을 맞아
선전했으나 4-2로 아깝게 은메달에 그쳤다.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남자 해비급
금메달을 따낸 문대성이
이승만 상임부회장과
정종택 단장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대회기간 중 가장 인기를 끈
자넷 갤러리와 브라이언
갤러더 남매의 시범.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는
한국 유학생들의 열띤
응원 모습.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태권도복을 증정받은 캐나다 애드먼트 시장이 도복을 입고 축사에서 겨루기를 연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한 이란의 아프리카잠세(오른쪽)와 스페인의 엘레나베니테즈



최우수선수상 수상자인 한국의 윤종일(왼쪽)과 중국의 왕슈가 IOC위원장패를 자랑하고 있다.



본지 4면과, 여자 7면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대표선수단의 임원들과 선수들이 모두 기념하고 있다.

제 14회(여자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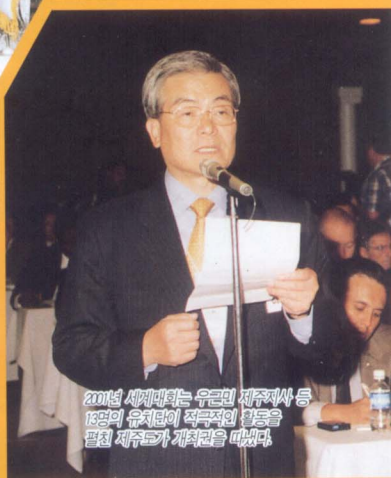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윤웅 회장

WTF 충희 소식

6월 1일 코스트 애드먼튼 플라 자호텔에서 93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연맹총회가 열렸다. 시드니 올림픽 결승전에서 서든데세제를 도입하는 방식 채택, 차기 세계대회 개최국 확정, 규약개정, 회원국 가입 신청이 승인되었다.



2001년 세계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제주도의 고유광 석정이 이중우 세계연맹 부총재로부터 대타개를 건네받고 있다.



2001년 세계대회는 유엔인 제주지사 등 16명의 유차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제주도가 개최권을 따냈다



제 14회 국제심판강습회가 양버타 대학에서 역대 강습회 중 가장 많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러시아 NOC 부위원장 및 태권도협회장 방한

김운용 회장, 스포츠교류 및 태권도 발전방향 의견교환

5월 7일 (올림픽회관)



코즐로프스키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과 크르치니코프 러시아 태권도협회 회장은 지난 5월 7일 올림픽회관에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여 양국 스포츠 교류와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발전 등에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김운용 회장, 코즐로프스키 러시아 NOC 부위원장, 크르치니코프 러시아 태권도협회장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 31기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5월 19일 ~ 29일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4단 이상 사범자 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 31기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생들은 자격검정 시험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 발급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료증과정을 수료한 태권도사범들이 김운용 회장을 비롯한 태권도계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제 2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5월 7일 ~ 16일
(양구실내체육관)

한국중고태권도연맹은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양구 실내체육관에서 제 2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285개 중고등학교에서 1,86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부산 동천고와 송곡여고, 중등부는 부천 성곡중과 서울 중화중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대회를 주최한 중고연맹을 비롯해 대회가 열린 강원도의 협회 임원 및 양구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선수들을 격려했다. (오른쪽에서부터) 이승일 강원도협회장, 정준중 중고연맹회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김성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장, 강원도 협회장, 김인수 중고연맹 부회장, 정길준·정익환 강원도 부회장, 서성오 양구군 대립도협회장.



동천고 · 송곡여고 ·



◀중고연맹 김인수 부회장이 남고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부산 동천고 정영한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3계급을 석권하며 여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송곡여고 김성진 코치에게 우승기를 수여하는 임경순 양구군수.



제 2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동천고 선수단의 지도자와 메달리스트 (왼쪽부터) 해바급 동메달 우현동, 박래순 감독, 김태형 코치, 미들급 금메달 정영환, 밴텀급 은메달 김철민.



부천 성곡중 · 중화중 종합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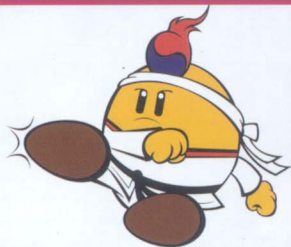


▲남고부 웰터급 결승에서 경상공고 이현수(청)가 부산체고 박성호를 맞아 원발 앞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5-3으로 이현수가 승리를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여고부 밴텀급 결승에서 경성여실고 전남(수청)의 공격을 효성고 정은숙이 피하고 있다. 정은숙이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 1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

5월 17일 ~ 20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태권도대회가 창설되어 광주협회 주관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최초로 지방에서 창설된 전국 규모대회인 제 1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타기 전국남녀고등학교태권도대회에는 전국의 124개교에서 798명의 남녀 고교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는데 인천 부광고와 리라공고가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방 최초로 광주에 창설된 뜻깊은 전국대회

최초로 지방에서 창설된 뜻깊은 대회에 광주지역 인사들과 태권도계 일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회를 빛내주었다.



인천 부광고(남) · 서울 리라



무명의 인천 부광고가 전국무대에서 처음으로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남고부 종합우승기를 수상하는 김형선 감독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여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리라공고가 우승기를 수상하고 있다. 2위는 송곡여고, 3위는 부산체고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주목받는 윤성희(리라공고·청)가 패더급 결승에서 강화여중과 열정화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2-1로 체급정상에 오른 윤성희는 여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잘했어' 자기팀 선수가 득점을 올리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관중석의 응원모습.

공고(여) 각각 종합우승

개최식에서 공수누대 군인들이 합창고 흥겨운 태권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제 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5월 29일 ~ 6월 1일
(제주시 생활체육관)

태권도 꿈나무들의 한마당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동안 제주시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제 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전국의 16개 시도를 대표한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었다.

수준높은 경기력을 보여준 남자 중등부에서는 전북이 3체급을 석권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고 핀급 우승을 차지한 김경수(전북 옥구중)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범경기로 펼쳐진 여자 중등부 경기는 서울이 7체급 출전자 모두 입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김경수(전북 옥구중) 최우수선수상 수상



초등부 플라이급 결승에서 서울대표 노광호(홍)와 충남의 이성규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결국 6:4로 노광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경수(전북 옥구중)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서울의 김길성(청)과 태극의 조바호가 겨룬 남자 중등부 미들급 결승전은 팽팽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2-2 동점 끝에 조바호가 무세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마당 할
합창 응원”을 보내고 있는 태권도 꿈나무들



제 11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

6월 3일 ~ 5일
(수원실내체육관)

경희대학교 주최로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 11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가 개최됐다.

1983년 태권도학과를 설립,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에 기틀을 세운 경희대가 태권도 유망주들을 발굴하기 위해 1989년에 창설한 총장기 대회는 올

해 11회째 대회를 맞이해 전국의 166개교에서 940명의 남녀 고교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는데 서울체고와 수내고가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체고(남), 수내고(여) 나란히 종합우승

◀남자 웰터급 결승에서 강원체고 유돈영(청)과 여수고 임채실이 점전을 벌이고 있다. 유돈영이 2-0으로 승리.

▶여자 페더급 결승에서 충남체고 장부자(청)가 오르발 돌려차기로 엄정화의 몸통을 공격하고 있다. 팽팽한 점전 끝에 2-2 동점을 이루었는데 엄정화에 우세함이 선언되었다.



제 1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최강팀 서울체고가 남녀 모두 종합우승

5월 25일 (서울체고 실내체육관)

전국의 체육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제 1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5월 25일 서울체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시도의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서울체고가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최강팀으로서 면모를 자랑했다.

▶서울체고 윤원중(홍)과 대전체고 이원영이 헤비급 결승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윤원중이 다져진 체력으로 밀어붙이며 체급 정상에 올랐다.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울체고 선수들이 장권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